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5

작/역/사/화/목/악/산/연/합/의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3-6 여심관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NID(천리안)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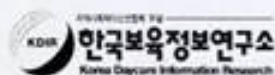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가능합니다.



서울 중구 옥장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5

자/역/사/목/탁/차/△/연/접/목

서울시 중구 정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5월호

<통권 40호>



<표지사진>

봄이 드디어 우리 바로 앞으로 찾아왔다. 이 푸근한 계절을 즐기 위해 수원의 팔달산으로 야외수업을 나가보았다. 모두들 훌라후프를 가지고 놀았는데 나무를 신나게 노는 듯... 밖으로 나가 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

일하며 생각하며 / 3

보육사업과 프로정신

나원형

아동인권 / 5

어린이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편집부

앙케이트 / 17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편집부

연장취재 / 23

어느 백화점 놀이방

오윤정

보육정책 / 25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지택연, 전국민보련

영국유학기 / 30

낯설고 물심은 타향에서(5)

정희연

전래놀이 / 37

유아에게 전래놀이를...

놀이연구회 유아교사모임

새노래 배요기 / 50

좋은 그림책 소개 / 51

짜·임·새

백말놀이 / 53

김량희

어린이교통공원

건강하게 삽시다 / 55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감기에 대하여(2)

작은 계획 / 63

김태일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 교실

세상읽기 / 65

편집부

선거, 씩씩한 이야기

탁아소별곡 / 67

김태일

꽃들나라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등산소묘임 / 69

이연순

예쁜 들꽃과 계곡 일음의 조화

통신이야기 / 71

서정은

어린이집 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우리들의 목소리 / 74

김태일

보육계풍향 / 77

김태일

소식과 소식 / 79

김태일

편집부에서 / 83

김태일

1996년 5월 합본호(통권 40호)/첫 발행1992. 5. 25./퍼넌곳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퍼넌이남미영/목은이주혜민, 박정애, 강애란, 변미양, 황미혜/퍼넌날1996년 5월 1일

읽어라 생각하라

보육사업과 프로정신

나원형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 운영위원장

사회가 점점 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인건비의 상승인데 그 원인은 여성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에 무억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보육문제에 신경을 쓴 입장이고 그것도 거의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와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교육비 지출도 만만찮다. 선진 외국이나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은 일찌감치 보육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여 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전면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이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교재의 수준 등 여러가지가 그들과 비교해 열악한 실정이다.

더구나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적법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부심과 사명감도 떨어지는 듯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보육사업을 장래에 유망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5년 전에 미국의 짐보리와 경쟁되는 킨더케어사의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이 있었다. 수십차례 사전 조정을 가진 뒤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관련학 박사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팀의 단계별 교재와 시스템, 또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교과과정을 보고 난 후 많은 것을 느꼈다. 그 규모의 방대함과 그들의 자신감(프로정신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은 아마 우리 교육부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가지 여건상 그 일을 계속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년 뒤 한국짐보리가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보고 아쉬운 감도 가졌었다.

필자 역시 딸 혜영이를 놀이방과 유치원에 보내 보면서 느낀 것은 초기에 그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했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한 역할도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같은 광범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기회를 주었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신세대들에게 다소간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루고루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한단계 높혔다고 할 수 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국민 거의 모두는 어떤 유형의 보육시설이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선진외국에서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환경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준 기관설립자들과 교사들의 공이 컸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위상이 좀더 정립되도록 국가에서 좀더 재정적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어주고, 우리 부모들의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좀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기개발이 아닌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저소득, 저학력계층을 위하여 좀더 국가와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관계로 어린시절 인격형성과 인성개발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과제이나 당장 그게 힘들다면 관련 학계와 연계해 연구를 겸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리라 는 생각이다.

이제는 보육문제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여러가지 시급한 일 중의 하나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아동인권

어린이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편집부

[우리네 아이들]은 그동안 몇차례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어린이 권리조약')과 관련한 글을 실은 바 있다('95년 3,4,9월호 참조). 또한 본회는 어린이 권리조약과 관련하여 아동 인권 관련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21개 민간단체와 결성한 바 있다. 지면을 통해 그동안 연대회의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보고서 제출까지 보고된 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본회의 결과등 그 이후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한다.

<경과 보고>

1.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이란?

기존 번역어인 [아동권리협약]이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연대회의에서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이라 부르고 있다. '협약'보다는 '조약'이라 하는 것이 조약의 강제성과 권위를 높여주며, 조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은 18세 미만자를 가르키기에 '어린이·청소년'이라 하였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 170여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 인권 조약이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속에는 어린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은 어린이의 보호에서 어린이의 평등과 자율성 존중으로, 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에서 자결권이 있는 어린이로, 그리고 복지를 위한 어린이 권리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어린이 권리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각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지만 그 일차적

책임은 해당 정부에 있다. 그래서 유엔은 조약 체결국들의 어린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해당 정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20일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으며, 위의 조항에 따라 19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보고서에 대한 심사 기관인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의무 이행에 있어 각 조약 당사국의 진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명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통상 매년 열리며 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은 Alila Belembaogo(여, 부르키나 파소(국가명))씨이다. 보통 유엔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들은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유엔어린이 권리위원회는 국제아동기금과 조약 실행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자격있는 조직의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조약 이행을 위한 정확한 권고를 해당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3.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결성과정 및 활동

어린이 권리조약 홍보를 목적으로, 또 1994년 11월 제출된 정부의 최초 보고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개진하기 위한 대안 보고서 준비를 목적으로 1995년 2월 9일 준비모임을 갖고 3월 15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결성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오덕(교육학자), 이윤구(서울 평화교육센터 원장), 주정일(아동학자), 한승헌(변호사) 등 4명이며, 실무대표는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간사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있다.

본회를 비롯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어린이 권리조약 홍보를 위해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7회에 걸쳐 어린이 인권 관련 기사를 게재했고, 2만장의 홍보지를 '95년 어린이날에 부모, 교사,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95년 7월 7일에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의거하여 연대회의에서 공동 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민간보고서는 정부 보고서가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부가 취한 정책, 법, 프로그램, 서비스를 나열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가로막는 '제한'과 '장애요소'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에서 조약이 이행되는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인 논평, 특별 논평, 권고의 형식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논평을 살펴보면, 1) 한국정부는 조약을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정부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조약의 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3) 정부보고서는 조약의 이행을 위해 일하는 많은 정부기관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정부보고서는 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민간단체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등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네 아이들 '95년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는 주요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이 자리에 한국의 민간대표 이기범,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가 초청을 받아 구두 발언과 토론을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참여연대 '96년 3/4월 호에 게재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한국 민간단체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실천지향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1996년 1월 18일~19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본 심사가 이뤄졌는데,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 대표 류은숙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5월 도서출판 <내일을 여는 책>에서 정부·민간 보고서, 그간 연대회의 활동을 담은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의견(권고사항) 채택

지난해 1월 18,19일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 26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에 장애요소가 되는 점등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최종의견(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권고문 내용에 "조약의 홍보와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 사회지표의 마련과 아동학대에 방대책 마련을 지정한 것, 소년소녀 가장의 보호"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권고안이 추상적으로 보다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후 어린이·청소년 권리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 어린이 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제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며, "유보조항의 철회를 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후 안 사실이지만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하위로

밝혀지는 부끄러운 거짓보고였다.) 2) '우려되는 문제'들로 한국정부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 어린이·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등)에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조약의 기본 원칙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안과 권고사항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유보한 제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2항 나호(5) [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 할 것(E '제안과 권고'19번)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실현할 것과 학교 교육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21번)
- 국내법을 차별금지(조약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개선을 노력할 것(22번)
-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조약이행에 감시·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발전시킬 것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또는 독립적인 청원기관, 감시기관을 설립할 것(23번)
-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한 협력의 증진을 꾀할 것(23번)
-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 정리할 것(24번)
-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26번)
-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할 것과 소년소녀 가장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27번)
-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에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28번)
- 어린이·청소년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의 최대한 개발 등 조약 29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29번)
- 어린이·청소년의 노동분야에 있어 ILO조약 138호[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30번)
-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을 착수할 것(31번)
- 정부보고서, 회의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이 국내에서 가능한 널리 배포할 것(32번)

5. 끝맺으며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국제법으로 우리정부는 최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사회발전을 인정받고 지도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조약의 준수와 유엔의 권고에 그전보다는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위한 아동, 인권 민간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를 위해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또한 어린이 권리조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권리조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결론적 의견 전문>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1회기

(Eleventh session)

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당사국(대한민국)이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사전 질문서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준 정보를, 그리고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곧 이어 대한민국이 제출해 준 추가 정보를 환영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계 속에서 곧바로

법정에서도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 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이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을 기쁘게 주목한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에서 잇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한국이 조약당사국으로서 둔 유보들을 철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재차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한국 대표단의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인 현시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적절한 실현과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중대되는 빈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최근에는 군사통치기간을 벗어났으며, 이런 상태는 한국 어린이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는 편집자주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21조 (가)항[아동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40조

2항 나호의 (5) [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유보한 처사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반대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조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린이·청소년, 특히 가장 취약한 어린이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에서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 의료 요원들 등을 의미한다.

11. 조약 4조[아래참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어린이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를 사회적 인격적으로 발전케 하기 위한 분야에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원칙 (즉 조약 2조[차별금지], 3조[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12조[어린이·아동의 관점 존중]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 하듯이 어린이를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들(최소 결혼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어린이들 그리고 사생아들을 괴롭히는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존재를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에의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불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해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입양관계 해소방식은 최상의 배려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 및 조약 21조[아래참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와의 관계에서 조약과 맞지 않는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있는 당국자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까지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여러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특히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나라 사이의 입양율이 높은 것이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어린이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어린이 유기문제,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높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적 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회의 또다른 관심거리들이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 교육제도에서 조약 29조[아래참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재주와 능력을 잠재력의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노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 제도의 개혁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이 허용되는 연령의 최하한선 사이의 모순이 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사이 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조약의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9조[아래참조], 40조[아래참조] 등과 양립되지 않는다.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 21조 가항, 40조 2항의 (5)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제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아래참조]로 표현되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도록 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년, 장애인,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 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사법경찰관,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관리 등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시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2조[차별금지]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최소 결혼 가능연령, 조약 23조[장애아동의 권리]에 따르는 모든 장애 어린이의 권리(특히 교육권), 사생아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이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연령의 최하한선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추기 위하여 끌어올리는 일.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국제적인 입양에 관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한 양립을 이루도록 관련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린이를 위한 옴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기관과 감시기관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들을 분류,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기록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아래 참조]의 완전히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데, 이런 자유권들은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규제에 의해서만 제한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18조[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당사국의 지원조치], 27조[아래 참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을 때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조기 탐지, 관찰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29조[아래참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

이 적절한 방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고용허용 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줄 것을 권장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아래참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룰', '리아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훈련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행정의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방지와 형사정의분과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요약된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가 되도록 권고한다.

(이상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 관련 조약 *

4조 - 당사국은 이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태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조 3항 -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12조 1항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1조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21조 가항 - 아동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7조 1항 -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행동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39조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조 1항 -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40조 2항 나호 (5) -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42조 -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앙케이트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편집부

5월이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는 이른바 가정의 달. 무언가 색다른 걸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의견이 아이들 이야기를 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10가지의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봤어요. 아이들의 조잘거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앙케이트를 위해 꽃망울어린이집, 봉천동에기방, 하나들셋 유아원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니?) 그 선생님이 왜 좋아?

- 이버가구요.
- 착해서.
- 언머가요~(주정주정)
- "네~"하면서 그냥 웃네요.
- 밥 잘 먹으니까요(우리 선생님은 튼튼하지요!).
- 네에, 이모(선생님) 좋아요.(그래, 왜 좋냐구...)
- (벅속에) 애기 있으니까요.
- 안경을 끼니까.
- 소리 안 지르니까(교사들이여! 반성합시다)
- 맛있는 간식을 매일 매일 자주 해주니까요(선생님은 일류 요리사!).

두번째 질문. 선생님이 미울 때가 언제야?

- 소리 지를 때(으악~ 좀 조용히 말할 수 없어요?)
- 공부할 때
- 안 머워(선생님의 열성적인 팬!)
- 벌 세울 때
- 없어요(여기도 팬이 있네!)
- 이모 베포잉-
- 한네 때(두 얼굴의 선생님. 웃을 땐 천사인데 화만 나면...)
- 맨매할 때
- 학교 다닐 때(양성교육? 보수교육?)

세번째 질문. 제일 맛있는 간식이 뭐야?

- 앗앗 다.(나는 뛰어난 소화력을 지닌 위대한 사람)
- 바나나, 딸기
- 땅콩, 피자
- 포도, 사과, 감, 수박, 호박(호박? 이건 좀 아닌데...)
- 피자, 양파(오잉?), 찹쌀 킷 때 이뽕 푸시는 거 말고(이쭈시게로 찹쌀 키냐?)
- 케익 먹고 싶어
- 피자, 까가, 새우깡 까까, 룬라, 사이다(이건 간식이 아니라 군것질이겠지...)
- 밥(밥도 간식이니?)
- 콘후레이크
- 떡볶이
- 예, 빈대떡(나는 신토불이!)
- 딸기, 사과
- 우유
- 핫케익
- 딸기 하구요 떡, 사과
- 토마토
- 까까, 스푸

네번째 물음. 갖고 싶은 것 한가지만 말해 볼래?

- 긴 봉적
- 아이스크림
- 모범택시(장난감 머니카)
- 타는 배
- 꽃에 물 뿌려주는 것(분무기? 너무 서정적이다...)
- 큰 봉적
- 큰 인형
- 뽀뽀(라자이춤)
-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
- 호보트 머니카
- 라자(꽃놀이, 조롱박)
- 호보트
- 자동차, 독수리 장난감
- 전자계산기(으하하하! 나는 좀 빨라서...)

다섯번째 물음.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 때가 제일 재미니?

- 장난감놀이, 소꿉장난, 물 마시기(어린이집에서 물 맥(떡)여요?)
- 귀목놀이(나 무섭지? 형!)
- 장난감 갖고 놀 때, 소꿉장난, 머그컵 탈 때
- 공책에 엄마, 아빠, 언니 그릴때(미래의 화가지망생)
- 비디오 볼 때
- 좋아, 땡따(똥 소리니?)
- 소꿉장난 가지고 놀 때
- 자전거 타기
- 노래할 때(라라라~ 아에이오우~)
- 엄마놀이, 공주놀이 할 때
- 책 볼 때
- 삼촌(자원활동가)이 업어줄 때
- 이모가 사진을 찍구요, 산에 풍러가구요.

- 빵빵 탈 때
- 재송동이 공 밟은 데(재송동이어서이집의 북풍을 말함)가 제일 재밌어요
- 큰 봉적 가지고 놀 때

여섯번째 물음. 무슨 그림책이 제일 재미니?

- 머운 오리새끼
- 입금년의 칼(좋아하는 책 가져옴)
- 개구리
- 호랑이 동화책
- 자전거가 나오는 책
- '나비를 뜨는 할머니'가 제일 재미있어
- 록산더스의 개
- 인어공주, 신데렐라
- 흑부리 할아버지
- 우주선 비행기
- '강타신은 고양이'를 빼준다.
- 동물그림책
- '곰'책
- '무엇이 없나요?'
- 찰떡이 나오는 거
- 코끼리
- 호랑이와 꽃강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 거북이 그림 있는거요
- 말하책

일곱번째 물음. 친구가 어떤 때 제일 예쁘니?

- 같이 놀 때
- 웃을 때
- 선물 줄 때(인형, 집 선물)

- 친거친거(무슨 소리?)
- 북이 낮을 때(어린이집에 화재 났을 때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다구?), 다 좋아요
- 살살 때릴 때(가우뚱?)
- 서로 알아줄 때
- 채운이가 귀경이 다니까
- 머리는 빳었는데 안 묶을 때(청초해보이잖아요...)
- 머리 묶을 때(난 깔끔한 게 좋아)
- 머끄런틀 타구요 공부도 열심히 하구요(뭐든지 열심히 할 때!)
- 비디오 같이 볼 때
- 격손할 때(이거야 정말 무슨 소리야?)

여덟번째 물음. 친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일까?

- 치마선물, 바지선물
- 에에 따준(과자는 누가 먹고?)
- 비디오
- 피자하구요, 돈까스, 햄버거 그 다음에 당우지(어쩐지 안 어울린다)
- 강아지
- 펄통
- 큰 치마
- 예쁜 인형, 아늑다운 꽃(선물엔 역시 꽃이 최고야!)
- 돼지인형
- 개구리인형
- 머니핀

아홉번째 물음.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니? 뭐야?

- 지갑, 핸드백
- 자동차(장난감)
- 허장륜
- 큰 가방

- 아빠는 구두상 신발, 언마한테는 옷이랑 머리띠
- 락(언마가 나 키워주셨으니까)
- 빵(그런데 모래로 지은 빵은 안 될까요?)
- 케익
- 당배, 라이타
- 카드
- 귀경이 선물
- 언마, 아빠랑 같이 놀아줘요(누가 누구랑 놀아주는 건지...)
- 허너띠(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요, 아빠 엄마)
- 멍멍 비디오 보여줄거예요
- 언마한테 빵 주대요.
- 뽀뽀 10번(멋있죠?)
- 언마는 허장륜, 아빠는 연필

열번째 물음. 엄마, 아빠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니?

- 롯데월드 하고요, 서록대공원, 자연농원 3군데
- 응-영-우너집(역시 집이 최고야!)
- 놀이터
- 가락곡, 대모대(해석하면 관악산, 낙성대)
- 꽃 있는 데.
- 백화점 - 장난감 사러 아니 책 사러 시계 사러, 다 살전데...
- 서록랜드 눈썰매장
- 언마 피건사해서 가면 안 돼(우리 엄마가 요즘 아파서... 난 효자거든요).
- 어디 다 가고 싶어. 인형극, 피자 먹으러, 까까 먹으러, 동물 보러, 토끼, 기린, 곰 보러(밖에만 나간다면...)
- 할머니집
- 동물원
- 시골
- 놀이방(놀이방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 저~어기 원숭이 보고 곰 보고 호랑이...

연장필재

어느 백화점 놀이방

오윤정 / 교육연구부

‘신세대’란 단어가 청소년을 겨냥한 단어라면, ‘미시족’은 주부를 겨냥한 단어이다. ‘미시족’이란 단어의 확산에 백화점의 공로가 빠질 수 없다. 지난 세일 기간동안 백화점은 많은 물건을 팔았을 것이며, 많은 미시족이 백화점을 들렀을 것이다. 세련된 옷차림과 잘 다듬어진 처녀같은 몸매가 미시족의 걸모습을 대표한다면, ‘자기주장’과 ‘자아실현’이란 말은 미시족의 지향을 대변하는 말이다. 미시족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이다. 가려져 있던 주부의 존재를 드러냈다는데서 긍정적이라면, 이 드러남이 ‘소비’의 측면에서 강조되기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긍정성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시족’이란 말의 탄생이 주부 주체의 목소리였다기 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은 곳에서 부터 출발했다는 데 있다.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것과 함께 많은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중함과 상냥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성을 띠고는 있지만 문화센터, 스포츠센터가 활성화 되어있다. 이와 함께 주부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데려온 자녀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그 놀이공간에 가 본 교사라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잠실 L 백화점을 보자. 10여평 쯤 되는 공간이 쇼핑 나온 엄마와 자녀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다. 소란스런 아동복매장 한쪽에 제공된 이 공간에는 어린이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7명 있었다. 공간의 벽만 제거하면 바로 매장이 되는 공간이다. 이 작은 공간에 있는 놀이감이라고는 고정시설물로 놀이집과 낮은 미끄럼틀이 달린 정글집이 전부이고, 비 고정시설물로는 자동차와 시이소소가 모두 세가지이다. 여기서 많게는 27명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부모들을 위한 시설은 세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전부이다. 그 안에 있는 놀이감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낡고 바퀴가 없거나, 놀이집은 폭풍우가 불었는지 날아가버린지 오래다. 좁은 공간에서 놀자니, 부딪치기 일쑤이고 적은 놀이감에 서로 탈려고 싸우기가 부지기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탁한 공기(매장보다 더 탁하다. 왜냐면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니 그럴 수밖에)와 비좁음, 없다

고 할 수 있는 놀이감.... “자,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 괜찮지? 이 정도면” 이렇게 백화점 주인은 어린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상계동 M백화점을 다시 보자. 물론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이 아닌 가끔 쇼핑 나오는 고객과 자녀를 위한 공간을 살펴보자. 역시 아동복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공중에 있다. 다락을 오르듯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복도 따라 가듯 링 모양 터널과 한켠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는 더욱 공기가 탁하다. 어린이들은 뛰는 것 외에는 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큰 아이들은 올라가는 계단을 붙잡고 놀고 있다. 이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이나 감독원이 없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설물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방치되어있는 것과 같다. 이 백화점 주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보니 옷이 참 많지. 그래 많이 보고 많이 사 달라고 해.”

백화점의 놀이방(에기방이라 지칭하기도 한다)은 일시적인 보육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시설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상술이 만든 보육시설의 극단적인 결과가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가 갖는 어린이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

소비자를 미시족으로 치켜세우는 만큼 대우 또한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제대로 된 공간에서 소비자와 그 자녀가 잠시나마 편하게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두 백화점의 놀이공간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행동 또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기서 놀고 있어.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라며 종종걸음으로 매장쪽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 필자의 눈에는 여기서 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간인데 어머니들은 아이를 그 안에 밀어넣는다. 쇼핑 후 돌아와 매장으로 나가버린 아이를 찾아 해매는 일이 두 백화점 모두 있었다. 근처에서 찾아와 놀라고 화난 마음에 아이를 쥐어 박는 엄마도 있었다. 엄마의 편리와 자녀의 권리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쉽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백화점에 정중하게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힘없는 어린이의 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주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몇년사이 보육시설이 많이 늘었다. 국가의 정책 또한 이러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집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육시설인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보육시설인가?’라는 물음은 곧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 이 잣대로 본 어느 백화점의 일시 보육공간은 형편이 없었다. 이에 대한 백화점의 반성과, 반성을 요구하는 당당한 미시족의 자세가 아쉽다.

보육정책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제안사항-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본회와 전국민간보육에서는 지난 2월말에 발표된 '96년 보육지침 내용을 분석하는 모임을 여러차례 갖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로 제출하였다.

제안서에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아직까지 보육시설의 양적확충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양적확충계획은 현실을 진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의 문제 역시 정책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1. 보육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시설확충 계획에 따른 현장의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지역실정에 근거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95년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보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공립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민간시설의 확충 유도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육사업이 계획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시설확충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여 지역별 보육아동과 시설정도, 확충 계획과 전국 평균치와의 상관관계, 보육시설의 정원미달 상태, 유령시설, 미인가 시설등을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수요의 재산출로 지역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

며, 보육사업의 방향도 시설확충만이 아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보육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1-2) 국민연금 기금 활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용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의 상대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곳에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초의 시설확충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대로 살리려면 대상자 선정시 설치지역, 보육사업 내용, 설치자의 자격기준 등이 담보능력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 활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3) 보육시설확충과 운영안정에 소요되는 재정중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보육예산도 높고 그에 따른 보육사업도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의 높은 요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획일적인 구분이 아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 지원기준을 두고, 중앙정부는 그 지원의 폭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2.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2-1) 아동지원에 관하여 소득지표를 만들고 차등 보육료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지원기준이 일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보육정책에서는 생보자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일정액수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복지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마저 소득이 높은 가정이 국공립 시설 이용시 보육료는 낮게 내고, 민간시설 이용시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도 보육료는 높게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가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동일한 질의 보육을 받도록 하려면 표준보육단가가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수준을 단계로 나눈 소득지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소득지표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득지표의 마련

이 장기적인 계획이라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한다면, 표준보육단가를 절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후 소득에 따른 부모부담과 표준보육단가와와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수혜자부담원칙과 국가사회보장원칙이 잘 조화된 보육제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 교구교재비 지원을 가정보육시설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놀이방이 전체 시설중 차지하는 비율은 42%나 됩니다. 놀이방은 시설설치가 비교적 쉬움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큼니다. 놀이방의 교구교재비 지원을 국고지원으로 책정하고 그 공공성 부여를 합법화 하여야 합니다. 불용예산의 활용 측면에서는 놀이방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2-3) 동일시설에 두자녀 입소시 경감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시설에 두자녀를 입소시킬 경우, 현재는 국공립에서만 경감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료가 훨씬 비싼 상황이라 두자녀 입소시 경감혜택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중심의 입장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국공립이든 민간시설이든 경감혜택이 주어지야 하고 그 경감액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3. 보육시설의 질적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체시설중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87%를 차지하고 보육아동이 65%에 이르고 있으나 국고 지원은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시점은 양과 질의 두 측면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질의 측면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육하는 교사들의 문제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1)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3-1-1) 보육교사 경력인정이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교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된 시설의 교사는 각 시·군·구 관계부처에 임용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자격/경력인정이 보육행정에 의해 관리되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교사와 국공립교사가 시설을 이적할 경우 근무경력도 상호간 인정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이긴 하나 유치원근무자가

이직을 할 경우 교육법에 의해 그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은 영역과 전문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민간시설이 보육사업의 과반수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등으로 교사경력을 설치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면 민간교사의 질담보는 요원합니다.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그 경력을 인정 받을 때 우수교사영입 등 교사의 질 향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3-1-2) 보육시설 양적확충에 따른 교사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일자리가 없고 시설장은 교사 구하기가 힘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등의 기구에서의 교사수급 및 전체 교사에 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1-3) 민간시설의 교사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수당등으로 교사인건비 지원을 국고지원으로 점진적 확대를 해주십시오.

보육료 산출내역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전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민간 시설장 측면에서 고시된 508,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사의 측면에서는 고시된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그 외의 수당 등은 전혀 없고 퇴직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건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수당 등의 지원으로 시설운영자/부모/교사들의 3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과 예산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점점 격차가 커지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교사처우의 간격을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며 이용자들도 어느 시설을 가도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3-1-4) 교사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사양성 교육시간, 실습기간등 제반조건이 강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교육 이수후 자격취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정시험등 좀더 까다로운 관문으로 강화되어 아동보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자격에 전문성과 긍지를 부여하여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존교사 보수교육도 예산과 실행일정,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일정을 미리 공고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승급보수교육 또한 경력교사 보수교육으로서 전문성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2) 시설장 자격및 교육에 관하여

3-2-1) 시설 설치시 시설장 보수교육이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성교육기관 교육생 절반이상이 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고 경험이 전혀없이 시설장이 되었을 때 많은 시행착오 속에 결국 시설을 폐·휴지하게됩니다. 따라서 시설장 경험이 없는 자가 시설설치시 시설장 보수교육이 마련되어 명실상부한 보육 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실무능력 및 자질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3-2-2) 시설장 자격을 세분화하고 그 조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자격자가 최초 시설 설치시 20명 이하의 가정보육시설장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20명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장은 아동수와 규모를 감안하여 적어도 현장경력 2년 이상의 자격교사로 시설장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보육에 대해 전혀 무자격자인 자부담 시설 설치자에게 한시적 자격인정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 일선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시설의 관리경영 최고책임자임을 그 역할로서 인정한다면 무자격 시설장이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영아및 장애아, 방과후 탁아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주십시오.

장애아 또는 영아 전담시설의 시범운영과 운영비 지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영아 전담시설은 상시 영아 40인이상은 영아의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고 인원조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아 영아 전담 시설 교사들의 특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보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되어야 합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아동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임으로 방과후 가정의 역할과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 보육시설이 다연령 혼합교육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감안하면 전담시설로의 유도가 바람직합니다.

현재 공부방의 형태로 저소득층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사례들을 수렴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지도육성책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여행기

낮설고 물설은 타향에서(5)

정희연 / 본회 전 부회장

1. "정말, 봄이 왔나보다."

벌써 여러 주일 전부터 곧 봄이 올 것이라고 예고방송을 해 온 나는 친구들로부터 거의 허풍장이쯤으로 취급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초쯤 되면 바람이 차가와도 이던지 겨울바람과는 다른 봄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있다지만 그 추위조차도 봄을 예고하는 이름으로 "꽃"자를 앞에 달고 있다.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온 클래스메이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해서 내가 누누히 그 자연현상을 설명해 주고는 여기도 곧 봄이 올 것이라는(실제로 나는 아직 차갑지만 약간의 봄내음을 실은 바람을 느껴왔다) 예고방송을 거의 아침마다 해댔다. 그러나 웬걸, 영국 날씨 이상하게 변덕스러운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봄은 커녕 아침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고 한겨울 강풍이 불어제껴 내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룸메이트 마가렛은 "이제 네 봄이야기는 그만 해라, 도대체 봄이 어디 왔다는 말이나? 내 귀에 큰 구멍이 뚫리겠다." (우리는 이럴때 '귀에 못이 박히게'라는 표현을 쓴다. 어쨌든 못이 박히면 구멍이 뚫리겠지? 일백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불평했다. 부활절 휴가를 이용해 며칠 여행을 다녀올 때는 4월하고도 중순이었는데 한겨울같이 하루종일 눈이 내린 날도 있었다. 영국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늘상 그러하니까. 4월에 이렇게 눈 내리는건 처음 봤다고 얘기하자 너무나 심상하게 6월에 눈이 온 적도 있는데 뭘 4월에 눈 온 걸 가지고 놀라냐는 무다.

영국은 겨울이 건조기가 아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습하다. 비록 나무들은 앙상하게 옷을 벗지만 잔디들은 선명한 초록빛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낮게 드리운 회색빛 하늘과 앙상한 나뭇가지, 푸른 잔디밭은 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겐 아주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어쨌든 그 지루했던 겨울이 드디어 가는가 보다. 개나리꽃과 노란 수선화, 벚꽃들이 제법 피었다. 그리고 요 며칠, 푸른하늘과 따사로운 햇빛도 느낄 수가 있다. 이제는 정말

로 아침부터 해가 비치고 하루종일 따뜻했다. 마가렛은 내게 활짝 웃으며 "정말 네말대로 봄이 여기 있다(영어로 하자면 "Spring is here.")"고 내게 말했다. '봄이 왔구나. 그래, 짧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겠지. 그러면 난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내 나라로 돌아가게 되겠지.' 날씨 좋은 어느 하루,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

2. "모든 아이들은 개별적 욕구와 그들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Richard Whittington Primary School은 전교생이 2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이다. 우리가 실습을 나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정도 규모의 작은 학교들이다. 런던이나 큰 도시로 가면 꽤 큰 규모의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많다. 학생수가 적어서 건물규모도 적지만 넓은 운동장과 잔디밭,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primary school과 secondary school로 나뉜다. 대부분은 이렇지만 가끔 primary school이 Infant school과 Junior school로 나뉘어져 있는 곳도 있다. primary school은 Nursery에서 Year 1으로 가기 전의 준비코스인 reception class부터 시작된다. Year 6에서 primary school을 졸업하면 secondary school로 진학하고 Year 10에 의무교육을 마치게 되면 College에서 2년간 공부하여 직업을 갖게 되거나 University로 진학할 수 있다.

이 학교는 크게 4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들은 unit라고 불렀다) 각 unit는 2개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실습을 나간 unit 1은 reception class와 Year 1이 함께 소속되어 있었다. 교실 3개 정도의 넓은 공간을 두 학급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어디를 가나 학급마다 따로 화장실과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복도를 우당탕 뛰어나가는 일은 없다. 모든 교실은 운동장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문이 만들어져 있다(대부분 학교들은 단층건물이므로 그것이 가능하다). unit 1은 화장실과 조용히 책을 읽거나 조각놀이를 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을 제외하고는 넓게 공간이 띄어있다. 물놀이, 모래놀이 영역(unit 1까지는 이 영역이 반드시 있다), 페인팅 영역, 만들기 코너, 소꿉놀이 영역, 읽기 영역(책은 큰 책꽂이가 있는 '조용한 방-Quiet Room'을 제외하고도 곳곳에 작은 책꽂이들을 준비하여 언제나 아이들이 꺼내보게끔 하고 있었다) 컴퓨터 영역, 선생님과 함께 둘러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피아노가 있는 음률 영역, 비디오와 환등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영역 등으로 교실은 구성되어 있었다. 환경구성은 아이들의 작품과 그때그때의 학습 주제들과 연관된 내용들로 꾸며 놓는다(내가 실습을 나가는 동안의 주제는 Jolly Postman이었는데 한쪽 코너에 우체통, 우체국, 우체부 복장, 소포, 편지 따위들을 준비해놓아 자유놀이 하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우체국 놀이를 할 수 있게 준비해놓았다).



← 부활절 휴가중 여행했던 Midland지방의 Bakewell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이 곳은 Bakewell Pudding이 유명한데 정말 맛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번호에는 필자가 사진기에 필름을 넣지 않고 찍어대는 우(!!)를 범한 탓에 관련 사진이 없다.

Richard Whittington School은 'team teaching system'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unit에 속한 학급의 두 담임선생님이 함께 일과구성을 하고 학습주제나 그룹활동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unit 1은 앞에서 말한대로 reception class와 Year 1이 소속되어 있다. 각 클래스당 아이들 수는 30명 정도이다(선생님의 얘기로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 한 학급당 30명을 한 교사가 담당하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은 학급당 1명씩이지만 보조교사가 1명씩 있고 그외에 미술담당교사가 따로 있고 많은 자원봉사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학부모들이거나 지역주민들로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다. 어느 곳을 실습 나가거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인데(비단 nursery나 학교 뿐 아니라 각종 단체들 지역사회의 모임 등에 서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부러운 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철저히 교사들의 점심시간 동안의 휴식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도시락 먹는 동안 또 그후의 점심시간 동안의 자유놀이 시간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봐준다.

primary school은 nursery와 달리 커리큘럼과 정해진 일과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일과표의 의미가 다르다. 우리는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시간표가 있다. 월요일 첫째 시간은 국어, 둘째시간은 산수, 화요일 네째시간은 미술 다음은 체육 하는 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이 학교는 일과표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9시 30분에 어떤 아이들은 읽기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자유선택놀이를 할 수 있다. 교사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각자 할 일을 정해준다. 주어진 내용을 빨리 끝마치곤 아이들은 각자 자유선택하여 다른 영역의 놀이를 하거나 다른 과목의 진로를 나갈 수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진로가 늦게 나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교사가 개인적인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긴다. 교과서도 우리와 달리 일정하게 한 종류가 아니라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몇가지 수준의 교과서가 있다. 교과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

는 학교를 가나 똑같은 교과서가 아니다. 각 학교나 교사에 따라 각 과목의 텍스트북을 정할 수 있는데 그 텍스트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전로가 빨리 나가는 아이들과 뒤쳐지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습을 나간 Year 1의 산수교과서를 보면 색깔로 수준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빨간 책은 가장 뒤쳐지는 아이들이, 파란책은 중간 수준 아이들이, 초록책은 그 다음 수준의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철저하게 아이들의 개별능력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루일과는 이렇게 대부분 소그룹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진행되고 사이사이 음악시간이나 이야기 듣기 시간, 체육시간 등에 반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빌면, "아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다. 모든 아이들은 개별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대응책을 찾고 또한 모든 아이들의 독자적 능력을 소중히 하고 아이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1988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생긴 뒤로 공립학교(일부 사립학교는 그들 나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이 커리큘럼을 따른다. 이 국가교육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Year 1의 담임교사의 얘기에 따르면 어떤 학교는 특히 예체능을 중점에 두고 또 어떤 학교는 다른 특정과목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약간씩 학교마다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primary school은 영어가 일주일에 5시간, 수학이 3.5시간, 미술이 1시간, 음악이 1시간, 체육이 1.5시간, 과학이 1.5시간, 역사 1시간, 지리 1시간, 테크놀로지가 1시간, 종교교육이 0.75시간으로 되어 있다. 교사는 이 배정된 시간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맞게 매일 각 과목에 해당하는 만큼의 활동을 배정해주고 개별지도로 진도를 나가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교사의 역할이 훨씬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학교는 공식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비해 훨씬 적다. Year 1에서 한번, Year 7에서 한번으로 primary school에서는 2번의 시험이 다이다. 이 두번의 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데 시험문제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직접 시험문안을 만든다. 그 외에 성적표는 시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과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교사의 관찰에 의한 보고서 형식이다. 때문에 성적표에는 어떠한 점수도, 아이들의 능력을 수치나 우열로 평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성적표는 reception class부터 secondary school까지 아이들과 함께 움직인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개별 아이들마다 두통한 성적표(사실 성적표라기 보다 개인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에는 교사의 코멘트와 아이들의 활동결과물(쓰기시간에 아이들이 작성한 노트 몇장, 아이들 그림, 과학시간에 아이들이 만든 관찰일지 등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다음 학년의 교사는 이 개인파일을 기초로 아이의 학습능력과 개인상황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 능력을 어떻

게 평가하는냐는 것이었는데 시험으로, 점수로 환산되지 않은 개별 아이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record booklet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하루일과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각기 가방을 제자리에 걸어놓고 책을 읽으면서 출석 부르는 시간을 기다린다. 책읽기는 이 학교가(대부분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권장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아이들은 제각각 책꽂이에서 자유로이 책을 고르거나 전날 학교에서 빌려간(매일 아이들은 학교가 끝날 때 책 한권씩을 집으로 빌려가 부모와 함께 책 읽기 시간을 갖는다) 책을 읽는다. 9시 30분에 교사가 출석을 부르고 그날 할 일들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한다. 그리고 교사는 각자 아이들에게 그날의 과제를 정해준다. 읽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제 수준에 맞는 읽기책으로 일대일로 교사와 읽기를 하고 그동안 다른 아이들은 미술코너에서 만들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문제를 풀거나 책읽기, 자유놀이(퍼즐, 컴퓨터게임, 물놀이, 모래놀이 등) 등을 한다. 과학실험이나 음악시간이 오면 함께 모여 그 시간을 진행한다.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reception class와 Year 1 class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동화책을 읽고 서로 느낌을 발표하거나 교사가 제시하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하루는 "우리가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종이에 적어 교실 벽에 걸어 놓았었다).

10시가 되면 모두 우유를 마신다. 우유는 국가에서 무상공급하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과가 따른다. 2차대전때 영국군인들의 체력이 다른 나라 군인들에 비해 뒤떨어짐이 드러나자 종전의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우유급식이 시작되었는데 교수중의 한 사람은 우스개로 이 우유가 바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체력 든든한 군인 만들기 위한 우유라고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 어쨌든 영국은 2차대전 종전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간식시간이 끝나면 30분 정도의 바깥놀이 시간이 있다.

12시에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 ⅔ 정도의 아이들은 도시락을 사오고 나머지는 학교급식을 먹는다(학교급식의 겨우 점심값은 부모가 부담한다). 아이들 도시락을 보면서 처음에 나는 정말로 한심(?)했다. 모두가 샌드위치를 가져오는데(매일!) 혼자 생각에 '어떻게 매일 저 샌드위치를 저 아이들은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조금 후 혼자 웃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은 어떠했나 기억을 떠올려서였다. 매일 밤에 떨치며 김에 계란에 김치에 뭐 그런 종류였다(다 비슷하겠지만). 영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도시락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떻게 재네들은 저렇게 매일 맛없이 보이는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을까?' 아무튼 아이들은 도시락 가방에 샌드위치와 음료수, 과자 한봉지, 초콜렛 1개, 과일 1가지씩은 꼭 싸온다. 이곳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에 비해 엄청 단 것을 많이 먹는 편인데 처음에 와서 수퍼에 갔을 때 다양한 초콜렛과 사탕 종류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밥 먹고 초콜렛 먹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곳의 식습관

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초콜렛바를 우물거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전제학생이 다 함께 강당에 모이는 Assembly시간이 일주일에 2번 있다. 이 시간은 주로 교장선생님이 진행하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새 노래를 배우거나 그 주일에 있었던 특별한 아이들의 작업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한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를 했었다. 200명 정도의 아이들과 전제 선생님 앞에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소개를 하자니 진땀이 날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교장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어 무사히 넘겼다. 교장선생님이 그 전날 내게 한국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냐길래, 밥과 여러가지 반찬을 이야기해주었더니 그것을 Assembly시간에 준비해보라고 했다. 마침 집에서 보내온 김이 있었길래 밥과 김과 수저를 준비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김이나 미역은 서양사람들은 대부분 못먹는 음식인 줄 안다. 내가 젓가락으로 김을 집어 밥을 동그랗게 말아 먹는 시늉을 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Year 1 class 아이들은 거의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아끼"했다. Assembly시간 후에 한 여자아이는 내게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오렌지쥬스 좋아해?" "그럼" "초콜렛케익 먹어?" "그럼" "비스킷 좋아해?" "가끔 먹지, 왜?" 그러자 그 아이는 정말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데 난 김을 먹잖아"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에게 김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보통 음식은 먹지 않고 오직 그 '이상한' 김만 먹는 걸로 생각되어졌나 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영어실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세상에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는 영국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살며 풍습이나 식습관이 각기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주었다. 그 아이가 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전제가 모이는 시간에 다른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 내게는 생각되었다. 영국은 다인종사회이다. 인도나 파키스탄, 아프리카, 홍콩 등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이민 온 많은 소수민족이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회나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접하고 이해하면서 키간다면 영국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그늘인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나의 생각이었다.

오후일과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거나 일과에 따라 대그룹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3시가 되면 수업이 끝난다.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필기도구, 종이, 크레파스, 물감, 책 등등.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매일의 준비물은 없다. 부모들은 학교급식을 이용할 경우 점심값과 입학할 때 교복값(이곳은 primary school부터 대부분 교복을 입는다) 정도만 부담한다. 학교가 끝나고 속셈학원이나 미술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없다(왜냐고? 속셈학원이 없으니까). 대신 각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스포츠센터나 모임에서 주관하는 각종 그룹활동에 아이들은 참여한다. 수영클럽, 축구클럽, 체조클럽, 무용클럽 등등. 그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실제 특정기술을 익히리도록 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담임교사는 말해주었다.

영국이라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되어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의 개별능력에 맞게 수업진행을 하기에는 30여명의 아이들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능력을 시험으로,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아이들 각자가 지닌 개별적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주려 한다는 목표 자체'가 아닐까라는 게 Richard Whittington Primary School을 전학하고 난 나의 느낌이었다.

3. 엄마, 오랫동안 편지를 못했습니다.

T.V 뉴스에서 독도문제로 일본과 한국이 미묘한 관계에 있다는 보도를 했다(항상 독도문제가 나올 때 그 이면에는 더 큰 정치, 경제적 사안이 걸려있다). 마가렛은 내게 묻기를 "그 작은 섬은 정말은 누구네 땅인데?" 내 대답은 "물론, 독도는 우리 땅" 얼마후 선거관련으로 대대적인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시위장면이 보여졌다. 미타는 "남한이야, 북한이야?"하고 묻는다. "남한" 미타의 입이 벌어진다. "저렇게 데모해?"(그 의미는 '저렇게 격렬하게?') 그 다음 최근의 보도, 북한의 군대가 DMZ 근처로 이동하고 무력시위가 계속 돼 한반도에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내용. 같이 T.V를 보던 몇몇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최근에 받은 편지 두통.

"오늘은 4월 11일, 총선거날이라 임시공휴일이었다...(중략)...전화도 하고 그래라, 자주는 말고, 그리고 절대 밤거리는 나다니지 말거라"하는 친정엄마의 편지.

"엄마에게, 오랫동안 편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세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모두 잘 있어요. 나도 유치원 잘 다녀요. 원당에도 전철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편해요. 여기는 남쪽부터 꽃이 폈어요(분명 뉴스에서 들었겠지?) 엄마 보고 싶어요. 친구가."하는 아들의 편지. 아!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친구야! 한 80밤쯤 지나면 엄마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정희연 선생님이 목고 계시는 곳의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짧은 인사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Chung, Hee Yun
28N, YWCA Alexandra Hostel,
Fourth Ave, HARLOW,
Essex, U.K.
CM20 1DN

전래놀이

유아에게 전래놀이를...

놀이연구회 유아교사모임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배우고 놀이는 유아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 놀이는 유아의 생활 그 자체이며 동시에 유아들이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유아들에게 있어 놀이는 각 발달 영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놀거나 경쟁하고 싸움을 하면서 다른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도덕적 기준이나 규칙, 성역할 등 많은 사회적 학습을 하게 된다.

언어는 놀이 진행에 필수적인 매체의 역할을 하므로 언어발달의 수단이 되고 신체 성장이 촉진되며 바른 자세 형성, 기본 운동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놀이를 통하여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놀이의 중요성은 유아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번 6차 개정에는 더욱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적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현실은 입시경쟁을 위해 특기교육이나 문자교육의 길로 치닫고 있다. 유아교육도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주입식 숫자, 문자 등을 가르치길 요구하고 그 같은 교육에 치중하는 학원들이 성업중이다. 또한 참다운 교육을 생각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낸 부모는 보내고도 불안하여 아이들을 여기저기 몇곳의 학원들을 다니며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몹시 바쁜 아이들로 키우고 있다. 정서 발달, 신체 발달 등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를 끼치는 값비싼 장난감을 보상으로 받으며 여러개의 가방을 바꿔가며 학원을 다니는 것이다.

터없이 부족한 놀이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스팔트길, 골목길 어디서나 꼭 차가 다니는 자동차들...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환경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문화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옛 것의 아름다움과 그에 상응하는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전통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것을 찾기 위한 놀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전자오락, TV, 외국 장난감(주로 인지계발을 위한) 등에 싸여 점점 개인화되고 폭력적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놀이, "전래놀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을 키울 때이다.

특히 유아들에게 있어 전래놀이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목적물을 맞추고, 달리고, 쫓고, 당기고, 숨고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서 정서를 거침없이 표출, 즐거움을 맛보게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둘째,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규칙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상호 의존성과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언어는 문화 그 자체로 다음 세대로 전달, 계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발달과 문화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보다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고, 물리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인지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여섯째, 전래놀이의 대부분은 놀이 노래가 있어 노랫가락을 향유함은 물론이고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준다.

☞ 실내에서의 놀이

1. 칠교놀이(관련자료 별첨)

●놀이의 개요

칠교놀이는 일곱개의 조각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며 노는 놀이로 재미있고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쉽게 놀 수 있다.

●교육적 효과

놀이를 통해 시각적 변별력을 길러줄 수 있고, 여러 조각을 맞추어야 하므로 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또한 개인 또는 집단의 지혜를 모아 무궁무진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창작 과정에서 구성력과 지능을 발달시키게 된다.

●놀이방법

- ① 혼자서 놀 때 : 일곱개의 조각을 다 이용하여 칠교도를 보며 순서대로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만들기도 한다.

- ② 소집단 활동 : 먼저 두편으로 나눈다. (예로 각각 꽃과 나비라고 하자) 꽃편에서 칠교도에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하면 나비편에서는 그 모양을 찾아 일곱조각을 다 써서 만든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안에 다 못하면 상대방으로 칠교판을 넘겨 주고 새로운 형태를 지정한다. 이렇게 하여 많이 맞추는 편이 이긴다.
- ③ 대집단 활동 : (조별로 전체가 놀 때) 칠교도를 교실의 한쪽 벽면에 붙여 어린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각 분단에서 한 아이씩 돌아가면서 형태를 지정하면 분단 어린이들이 의논하여 가장 빠르게 맞추는 조가 점수를 올리게 된다.

2. 산가지 놀이

●놀이개요

산가지는 계산하는데 쓰는 짧게 잘라 만든 가는 나무토막을 말한다(보통 15센티의 얇은 막대기). 이 산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푸는데 사용했다. 2-4명의 아이가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던져 건드리지 않고 차례로 한 개씩 따가는 놀이로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교육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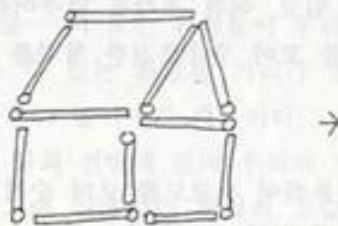
산가지 놀이를 통하여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다. 수를 셀 수 있는 능력과 더하기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자기 중심적 사고를 탈피할 수 있다.

●놀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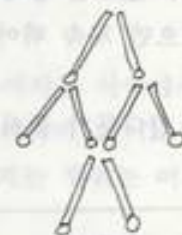
- ① 여러개의 산가지를 한번에 집어 바닥에 놓는다.
- ② 한사람씩 차례로 산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한개씩 가져간다.
- ③ 만일 산가지를 건드리면 다시 쌓아 놓는다.
- ④ 산가지가 없어질 때까지 놀이를 계속 한다.
- ⑤ 산가지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놀이변형

- ① 산가지를 이용해 여러가지 모양 만들기
- ② 산가지 형태 바꾸기
 - 산가지 한개를 움직여서 집의 방향 바꾸기



- 산가지 세개를 움직여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방향 바꾸기



3. 그늘놀이

●놀이개요

두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그려진 놀이판에서 그려진 정해진 수의 놀이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다 잡으면 이기는 놀이로 장소와 시간,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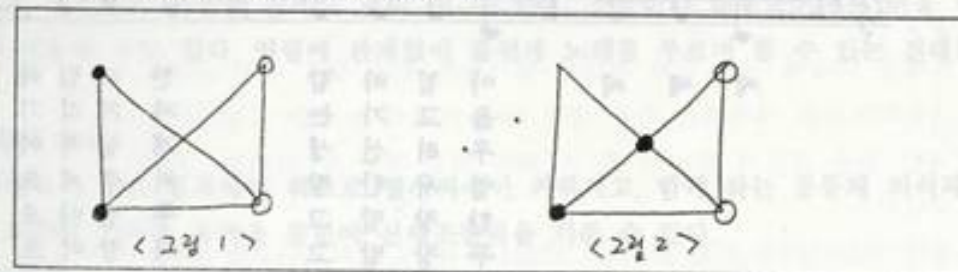
●교육적 효과

고누놀이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선정해 활동할 수 있고, 규칙의 학습과 함께 결과 예상 및 인지적 발달을 돕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방법

1) 우물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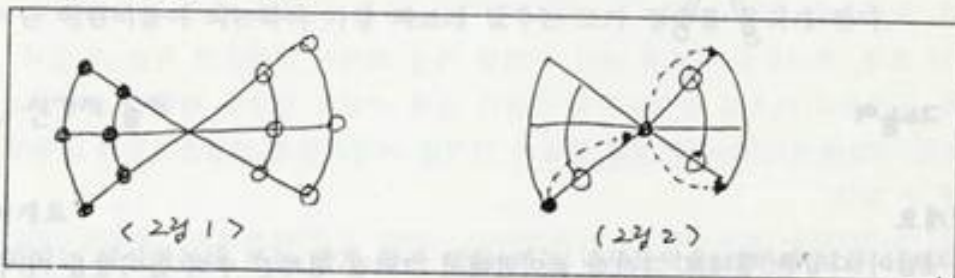
- ① 놀이를 정하는 두명이 그림1과 같이 말 2개를 판 위에 놓고 시작한다.
- ② 순서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말을 비어있는 점으로 한칸씩 옮겨간다.
- ③ 더 이상 말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림2와 같은 경우가 되었을 때 놀이는 끝난다.
- ④ 즉, 흰색 말이 움직일 차례라면 흰색 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은색 말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2) 나비고누

- ① 놀이를 하는 두명이 그림1과 같이 말 6개를 판 위에 놓고 시작한다.

- ② 순서를 정한 후 돌아가면서 말을 비어있는 점으로 한 칸씩 옮겨간다.
- ③ 그러나 그림2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으면 계속 뛰어 넘어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 ④ 방향을 바꾸어 가며 잡는다든가 한 방향으로만 간다든가 등의 규칙은 사전에 정해 실행할 수 있다.



4. 세세세

●놀이개요

언제 어디서든 몇명만 모여 있으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놀 시간이 적으면 적은대로 한 두번 하고 끝낼 수 있고 시간이 많으면 이것저것 하며 오래 놀 수도 있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세세는 아이들에게 손쉽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교육적 효과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을 익히게 되며 협응력을 기르게 한다. 피부접촉을 통해서 쉽게 친근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어 손뼉을 쳐야 재미있으므로 못하는 아이와 하게 되면 어려운 곳은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이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다.

●세세세의 예

5. 투호

●놀이개요

예전에 궁중의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던 놀이로서 화살과 같이 생긴 살을 통에 집어넣는 것이다. 여자의 놀이로서 남자들이 사용했던 기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게다가 던지는 행위는 여자의 놀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투호에서는 보인다.

●교육적 효과

일정한 크기의 통 안에 물건을 넣는 것은 집중력을 기르는데 좋고, 거리개념 및 눈과 손의 협응력을 발달시키는데 좋다.

●놀이방법

- ① 투호를 넣을 통과 투호를 준비한다.
- ② 투호 통을 놓고 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다.
- ③ 3-4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다.
- ④ 가위바위보로 순서로 정하고 정해진 투호를 통에 던져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긴다.

●놀이 변형

- ① 나무 젓가락과 요쿠르트병을 이용한 투호
- ② 과녁 맞추기

마당에서 할 수 있는 놀이

1. 남대문 놀이

●놀이개요

넓은 공간에서 특별한 준비도 없이 놀 수 있고, 소풍이나 대동놀이에서 편을 나누려 할 때 이용될 수도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는 전래놀이이다.

●교육적 효과

차례차례 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질서의식이 키워지고,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과 한사람씩 문안에 가두는 동작을 통하여 신체조절력을 기를 수 있다.

●놀이방법

- ① 여러명 중 두사람을 뽑아 문지기로 삼는다.
- ② 문지기는 양손을 마주 잡고 문 같은 모양을 만든다.

- ③ 나머지 사람들은 한줄로 줄을 지어 어깨 또는 허리를 붙잡고 선다.
- ④ 노래를 부르며 차례차례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 ⑤ 문지기는 노래를 부른다.
- ⑥ 이 놀이 후 차례로 각각의 문지기 뒤에 서면 자연스럽게 두페로 나누어지고 다음 놀이로 연결할 수 있다.

●놀이노래



2. 꽃따기 놀이

●놀이개요

함께 노래를 하면서 하는 놀이로 요사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하나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교육적 효과

편을 나누어 손을 잡고 함께 하는 활동으로 집단간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며 각 아동간에는 서로 이름을 불러 주므로 친밀감이 생긴다. 적극성과 자신감이 생기며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가리게 되므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놀이방법

- ① 두페로 나누어 각각 일렬 횡대로 옆사람과 손을 잡고 마주 선다.
- ② 가위바위보로 시작하는 편을 정한 다음 아래의 노래를 나누어 부른다.
- ③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하면 미리 정한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간다.
- ④ 호명당한 아이와 이쪽 편의 한 아이가 나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 ⑤ 이렇게 해서 이긴 쪽이 다시 지명할 수 있고, 한 아이도 안 남을 때까지 놀이를 계속한다.

●놀이노래



3. 알싸기 술래잡기

●놀이개요

넓은 장소에서 비교적 인원수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로 특별한 준비물이나 놀이 노래가 없다. 공간과 시간은 미리 제한하고 술래를 하고자 하는 유아가 많은 경우에는 교사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교육적 효과

서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순발력 및 협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아울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구별없이 도와주는 가운데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기를 수 있다.

●놀이방법

- ① 술래를 정한다(전체의 1/5 정도가 좋다)
- ② 술래를 알리고 10을 센 후에 친구들을 잡기 시작한다.
- ③ 술래에게 잡힌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양팔을 펴고 양발을 벌리고 서 있어야 한다.
- ④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서 있는 유아의 다리 밑을 통과하면 풀려난다.
- ⑤ 친구를 살리려다 술래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야 한다.
- ⑥ 술래에게 모두 잡히면 술래를 바꾼다. 이때 술래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서 술래를 정한다.

4. 가위바위보 업어주기

●놀이개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고 자기 등에 업힌 사람의 승패에 따라 또 업느냐 업히느냐가 결정되는 놀이로 유아들이 매우 흥미있어 한다.

●교육적 효과

빠른 시간안에 여러 친구들과 친숙해질 수 있다.

●놀이방법

- 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 ②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업어준다.
- ③ 업은 채로 다른 조와 가위바위보 한다.
- ④ 지면 상대방을 각각 업어준다.
-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5. 병신 술래잡기

●놀이개요

임진왜란때 정춘신이라는 분이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는 밀서를 가지고 가다 왜병을 만났는데 그때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빠른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병신 흉내를 내어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에서 생긴 놀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뛰어 다니며 즐길 수 있다.

●교육적 효과

신체 부분에 대한 명칭 및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놀이방법

- ① 술래를 한 사람 정한다.
- ② 맨 먼저 술래가 된 사람은 술래가 아닌 사람을 찾아 다닌다.
- ③ 술래의 손이 닿으면 술래가 되는데 이때 술래의 손이 닿은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찾아 다녀야 한다.
- ④ 이렇게 하여 술래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발목을 전 술래, 배를 전 술래, 머리를 전 술래 등 각양각색의 술래가 아직 술래가 되지 않은 사람을 쫓아다닌다.
- ⑤ 모두가 술래가 될 때까지 쫓아 다닌다.

6. 몸 다리기

●놀이개요

남한지방에서 이웃 마을 사이에 성행한 놀이로 승패에 따라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던 줄다리기의 변형된 형태이다. 주로 정월 대보름에 많이 행해졌다.

●교육적 효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므로 협동과 단결심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놀이방법

- ① 패를 둘로 나눠 각각 구호를 정한다.
- ② 같은 패끼리 앞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선다.

- ③ 시작 신호에 따라 서로 잡아 당긴다.
- ④ 정해진 곳까지 끌려오거나 끊어지면 진다.

●유의점

- ① 놀이시작 전후에 구호, 노래 등으로 힘을 북돋아준다.
- ② 놀이가 끝나기까지 앞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있던 손을 놓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

7. 망 잡기

●놀이개요

땅은 놀이 도화지, 황토흙을 일구며 살아온 옛날에는 땅을 도화지로 삼고 주위의 자연물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놀이의 도구로 활용한 놀이가 많았다. 망잡기 놀이는 공간 활용에 있어 유동성이 있고 놀이도구도 간단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교육적 효과

손과 눈의 협응력에 도움이 된다.

땅바닥에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을 보며 도형을 익힌다.

놀이를 행하는 순서를 번호로 표시하며 숫자를 익힌다.

앵금질이나 두발뛰기 등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

평형감각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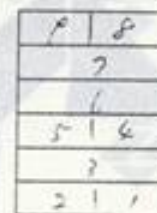
땅에 그리는 모양에 따라 규칙이 있어 규칙에 따르는 사회성을 기른다.

●놀이방법

돌을 1번에 던져놓고 2번, 3번은 한발로, 4,5번은 두발로, 6번은 한발로, 7,8번은 두발로 다시 7,8번에서 한번에 뒤로 돈다. 그리고 6->5, 4->3=>2 순으로 돌아 나오고 21번에서 1번의 망을 주워 나온다.

●유의점

망잡기 그림의 크기는 유아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친숙하게 한다. 망을 던질 때 주위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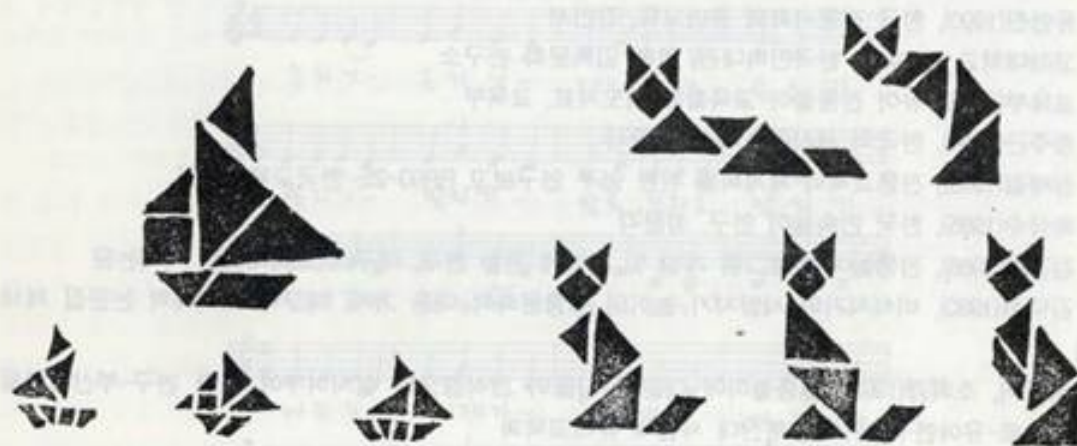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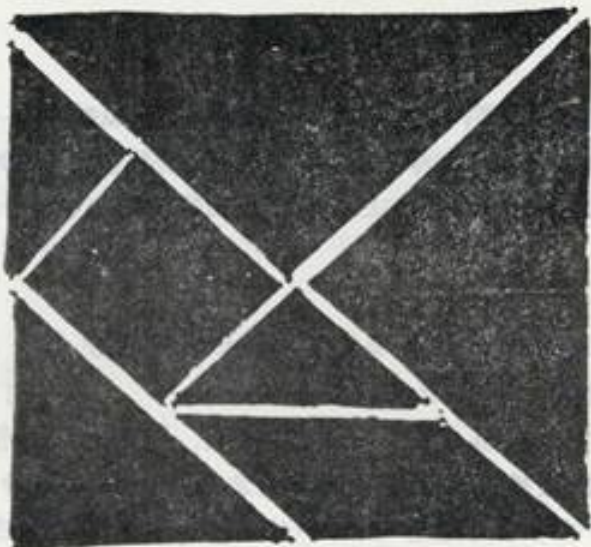


8. 여러가지 씨름

- ① 눈씨름 ② 팔씨름 ③ 계씨름
- ④ 손바닥 씨름 ⑤ 돼지 씨름 ⑥ 손가락 씨름

<별첨 : 칠교판과 칠교도>

40% 축소



전래놀이를 좀 더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놀이 연구회 놀(1996), 놀이 배움터
- 유안진(1981), 한국 고유의 아동놀이, 정민사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 고려대학교 편(1980), 한국민속대관,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 교육부(1993), 유아 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부
- 장주근(1984),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 정재걸(1993),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 RR93-25,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수(1985), 한국 민속놀이 연구, 성문각
- 김경희(1986), 전통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덕선(1980), 비석치기와 사방치기 놀이의 전통문화적 내용 가치, 대구대 교육대학 논문집 제16호
- 김선미, 조희경(1992), 전통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정도와 실시여부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유아연구 제10호, 부산대 사범대 유아교육과
- 김효선(1991), 유아를 위한 율놀이 모형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이경우, 이은화(1987), 한국 어린이의 전통적 집단놀이에 관한 연구 조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 이기현(1987),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에 관한 연구, 어린이 연구 제 23호, 대구대 사범대 유아교육과
- 이은화(1989), 전통놀이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연대 박사논문
- 김정혜(1993), 전통놀이의 5세 유아를 위한 적용방안, 부산대 석사논문
- 김세희(1994), 한국전래동요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 분석, 이대 박사학위 논문
- 김연옥(1994), 전통놀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보존개념을 중심으로, 교원대 일반대 학원 석사논문
- 놀이연구회 회보
- 초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비디오 (놀이관련 프로그램 및 전통 춤놀이 율동 등의 내용)

새 노래 배우기

손치기 하세

(가장모리: 덩덕덩 따름)



이번에 소개하는 노래는 '손치기 하세'라는 구전동요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이어서 부르는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악보로 옮긴 음이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음이 낮고 따라부르기 쉬워서 아이들이 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둘씩 마주 보고 서서 한번은 상대방쪽으로 손이나 발을 밀면서 가고, 또 한번은 상대방이 내쪽으로 밀고 오게 해서, 노래가사에 맞게 춤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면 재미있어 합니다.

소개 : 서은희(어깨동무어린이집)

좋은 그림책 소개

오늘은 소풍가는 날

글 쓰쓰이 오리코 / 그림 히야시 아키코 / 한림출판사 / 3,000원 / 24쪽

4월도 중순을 훨씬 넘어 5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계절에 어떤 그림책을 지탁한 식구들에게 소개할까 망설이다가 이 책이 눈에 띄어 골랐다.

봄이 되면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들떠 있는 날이 많다. 겨우내 움추리며 실내에서만 지내다 드디어 소풍을 갈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까? 무엇 입고 갈까? 도시락으로 무엇을 싸갈까?

선생님, 아이, 부모 모두에게 너무나 설레이게 만드는 것이 소풍이다.

소풍 가기 전날 모두들 하늘을 쳐다보며 제일 궁금해 하는건 바로 날씨! 전날 비라도 오거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저녁내내 불안하다.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바람이라도 많이 불면 어쩌나?

우리 친구 이슬이도 우리들과 똑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 하늘을 보고는 웃음이 입가에 절로 돌며 큰 소리로 외친다. "와! 해가 떴다.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은 소풍가는 날], 이 그림책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엄마, 아빠의 일을 조금이라도 거들고 싶고, 빨리 가고 싶어 서두르다 말썽만 일으켜서 오히려 늦어지고마는 장면이 그림책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림책 크기도 적당하고 두께도 얇아서 한 손에 넉넉히 잡힌다. 파스텔톤이라 그림도 아주 부드러운 3세 이상이면 누구나 좋아한다.

그림책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소풍가는 실례임과 기쁨으로 보냈으면 한다.



코끼리왕 바바

글, 그림 장 드 브루노프 / 김미경 옮김 / 네버랜드 / 6,000원 / 48쪽

옛날부터 자녀나 손자들을 위해 손수 만든 그림책들이 있다. 코끼리왕 바바도 그중 하나인데 이 책은 병치료를 위해 멀리 떠나있어야 했던 장 드 브루노프가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든 그림책이다.

그림책을 처음 들고 겉표지를 보면 우선 아주 맛있는 주황색 바탕에 너무나도 친근하게 생긴 코끼리 바바를 만날 수 있다. 책도 아주 큼직해서 그림도 시원시원하다.

바바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그림책 중의 하나다. 색채가 간단한 회색과 초록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는 아이들이나 어른도 안정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

대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아기 코끼리 바바는 어느날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게 된다. 집에 걸린 채 도망치다 도시로 오게 된 바바는 낯선 도시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친절한 부인을 만나서 구두와 양복도 사입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본다. 바바는 부인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살다가 예전에 살던 코끼리마을의 사촌들 아디와 셀레스트를 만나 다시 코끼리 마을로 돌아가게 된다. 왕이 독버섯을 먹고 죽게 되자 바바는 왕이 되고 셀레스트와 결혼도 한다. 축제, 결혼식 잔치가 성대히 벌어지고 모두 모두 즐겁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노란색 풍선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며 두 코끼리에게 벌어질 멋진 일들을 기대한다.

두리몽실하게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다. 바바가 무언가를 집거나 먹을 때 손이 아닌 코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주로 만화풍의 그림책에서 범하는 오류중 동물이 특히 코끼리들이 코보다는 손(발)을 쓰는데 바바이야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다.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할 장면이 많은데 특히 결혼식 장면이랑 자동차여행장면을 좋아할 것이다. 그림책을 다 보고 책장을 덮으면 아주 재미난 옛날이야기 하나를 들은 느낌을 줘서 두고 두고 긴 여운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놓칠 수 없다. 선생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여러번, 최소한 5번) 낮잠시간에 옛날이야기로 해주다가 그림책으로 내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림책 모임에서 자신있게 권한다. 4세 이상이면 남아, 여아 가릴 것 없이 모두들 즐거워 할 수 있다.

소개 : 고영미(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전달래동산 어린이집)



바깥놀이

어린이교통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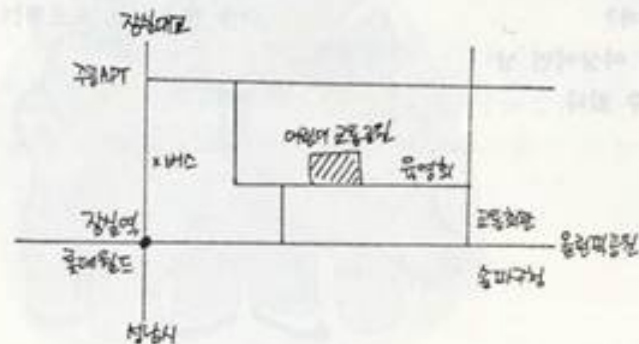
김광희 / 초록별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아이들에게 교통질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곳, 어린이교통공원을 소개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의 주요 건물모형과 각종 교통신호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기 전에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천동 7-15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천동 7-15

•연락처 / 전화 02413-0004

팩스 021202-9066

•관람료 / 무료

•관람시간 / (유치원생) 9:00-12:00

(초등학교) 13:00-18:00

•연중무휴

•관람대상 / 유치원생 - 초등학교

•교통편 / 지하철 - 2호선 잠실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거리

버스 - 잠실4리 하차

서측 : 240, 570, 18, 212, 300, 571번

동측 : 212, 21, 24, 571, 570, 137번

•주의점 /

점심식사를 겸한 나들이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12시까지이므로 잠깐 가서 견학 정도로만 계획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예약은 필요 없으나 도착 즉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매표는 전혀 없으며 화장실은 잘 갖추어져 있다.

•특징 /

<시설>

1) 교통시설 - 신호등 10, 교통표지판 98, 횡단보도 11, 육교, 지하도, 터널, 고가차도, 기차길, 건물 모형 등등

2) 유희시설 - 미끄럼틀, 그네, 구름다리를 겸한 종합 놀이터 두곳.

3) 특수시설 - 인공폭포, 보호감시탑, 모형 한강다리

<교육방법>

견학 시작 전 입구에서 여자 경찰관이 시설과 교통법규에 관한 설명을 아동들에게 간단하게 해 준다.

•나들이평가 /

아동들이 교통에 관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교육기관이 이용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북적대고, 줄서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자기자기하게 꾸며진 기차길역, 육교를 보고, 만져보기 보다는 놀이시설에만 눈길이 갔고, 잘 정돈되어 비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일일이 설명해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오히려 가족끼리 오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교통기관 단원에 맞추어 한번쯤은 다녀와 볼 만한 매력적인 장소였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인공폭포와 기타 일부시설이 공사중인 관계로 아쉬움이 남았으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하게 살시다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

감기에 대하여(2)

-환절기 아동의 감기를 중심으로-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차례>

1. 감기에 대한 물리학의 정의
2. 감기를 대면하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3. 환절기 감기의 특징과 원인
4. 어린 아이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5. 감기에 걸렸을 때의 한물짓기건강요법

3. 환절기 감기의 특징과 원인

1) 봄 환절기 감기

일반적으로 환절기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하고 건조해서 감기에 걸리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조건이다. 모든 아이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몸은 겨울내내 몸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지 못한 몸은 봄으로 갈 때 특히 고생을 한다. 즉 겨울인데도 계절을 잊은 채로 따뜻하게만 보내면서 먹을거리는 찬 과일에다가 찬 우유, 쥬스, 동물성 고단백이 농후한 음식을 주로 하다 보면 피부호흡이 안 돼서 몸은 몸 안의 독소들을 청소하기 위해 감기라는 비상수단을 쓰는 것이다.

춥다고 계속 난방에다 두터운 옷만 입고 실내에서만 지내다 보면 몸은 피부호흡을 통해 그때 그때마다 몸안의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태의 몸이 봄을 맞이하면 환절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또 기후가 건조하여 피부호흡이 더욱 방해를 받게 되어 심한 몸살에다 기침, 고열, 심하면 설사에 구토까지 겹치게 되는 것이다.

봄 환절기에 아이든 어른이든 감기를 심하게 앓는다거나 오래 간다는 것은 추위를 많이 타서 무조건 따뜻하게 지내면서 맛난 것에 운동은 안하고 TV등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겨울을 보냈다는 몸의 증언인 셈이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면 우리 몸 안의 피는 딱 해지고 간장과 신장의 노폐물을 해독하고 이과시키는 기능이 무력해져서 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몸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환절기라는 기후적인 특징으로 하여 외부환경에 대해 몸의 적응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감기라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어린 아이의 몸과 어른의 몸

우리가 흔히 어른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생리기능을 습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경향성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환경이나 조건이 어른을 위주로 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약하다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의 몸은 어른에 비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어른의 몸과 다른 것이다. 아이의 몸은 아이의 몸이고, 어른의 몸은 어른의 몸일 뿐이다.

아이가 어른에 비해서 감기나 설사 등이 잦지만 이는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깊이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보면 아이가 사는 조건이 지나치게 어른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몸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른에 비해 감기나 설사 등이 잦은 것 뿐이다. 반면 아이의 몸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생활환경에서는 웬만한 추위나 더위, 거친 음식 등도 아이들은 잘 이겨낸다.

지나치게 어른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는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해도 금방 몸의 이상을 보인다. 아이의 몸은 성장 속도의 특성 못지않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변화가 몹시 빠르다. 예를 들면 콧물을 조금 하는가 싶으면 금새 기침에 열을 내거나 설사까지 하곤 한다. 이러한 아이의 몸의 변화는 아이의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데 반면에 아이는 조금만 주의를 써주거나 간호를 해주면 금방 나아진다. 어린 아이 몸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 위주로만 생각하여 방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조금의 이상에도 당혹하여 무조건 약이나 병원을 찾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어린 아이의 질병들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어른의 대부분의 질병들도 몸의 온전한 요구와 행로에서 벗어난(즉 대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어린 아이를 대함에 있어 어떻게 질병없이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어린 아이의 몸의 특성과 어린 아이 몸의 요구와 행로에 맞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몸이 차고 추워, 더위를 잘 타는 어머니의 아이는 대체로 감기에 자주 걸린다. 왜 그런가? 아이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의 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이의 몸의 요구와 행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추위와 더위를 대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는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게 되고, 한여름에는 선종기나 에어컨 때문에 땀도 흘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겨울을 겨울답지 않게, 여름을 여름답지 않게 보냈을 경우, 아이의 몸은 모르는 사이에 외부환경에 대해 적응력을 잃어버려 특하면 감기에 걸리고 또 걸렸다하면 쉽게 낫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약하다고 단정짓기 전에 먼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추위나 더위에 약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몸의 온전한 요구와 행로에 맞는 먹을거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어린 아이의 호흡구조와 기능

아이들의 호흡구조나 생리기능은 어른의 경우와 다르다.

아이들의 호흡기능은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과정을 거쳐 평균 12세 전후로 성인에 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때, 기관지의 성장특성으로 하여 아이의 피부를 통한 호흡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린 아이의 몸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도 높은 편이고 어른에 비해 추위를 덜 탄다. 성장에 따른 체온의 상승은 항상 피부호흡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풍습에서는 아이는 출게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바로 아이가 피부호흡이 잘 되도록 하라는 것이라.

감기는 대체로 호흡기의 이상으로 분류되며 어린 아이는 일년에 대체로 5-6회의 감기를 앓는다고 한다. 이는 어린 아이의 호흡기가 아직은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그만큼 외부기온이나 계절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아이는 주위 기온이 약간만 변해도 금방 콧물을 흘리는 경향이 있고 이 단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코가 막히면서 곧바로 기침, 기관지염으로 진행되곤 한다. 어린 아이의 기도는 어른에 비해 짧고 굵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금방 모세기

관지염으로 진행되고 또한 모세기관지염은 종종 만성후두염, 기관지천식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 아이의 몸의 빠른 변화에 어머니들은 당혹스럽기 쉽고 위낙에 홍수처럼 넘치는 의학정보에 의해 어머니들은 오히려 두려워지고 자기 아이의 몸의 이상들에 대해 무력해 지기가 쉽다. 지금 당장에 자기 아이의 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이후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상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이를 관찰하고 스스로 연구하기 보다는 거의 무조건 병원이나 약국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 아이의 일상생활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기 아이의 몸의 요구를 알려고 하는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아이의 어머니라는 점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이의 요구와 몸의 특성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평소에 아이의 피부호흡을 강화시켜서 부족한 폐기관지의 호흡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출게 키우는 아이가 감기도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바로 피부호흡이 잘 되어서 호흡기능이 원활하고 또한 성장으로 인한 몸 안의 열조절이 순조롭게 되니까 자연히 먹성이 좋아지고 산만하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피부호흡은 어린 아이의 성장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린 아이의 면역능력, 저항력, 정서, 지능, 소화력과 식욕, 피로기 등등이 피부호흡과 다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어른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피부는 가장 큰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몸 안의 오장육부의 건강상태가 피부의 상태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를 어른 못지않게, 더 나아가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난 주위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아이의 피부를 강화시키는 길이다. 어린 아이의 피부는 어른에 비할 수 없는 투명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어린 아이의 피부가 가지는 이러한 투명함과 순수함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것에 무한히 열려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투명함과 순수함을 최대한 살려내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어른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린 아이의 경우는 피부를 통하여 우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우주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스스로 자기 몸을 우주의 몸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우주로 열린 창인 어린 아이의 피부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연구하기로 하자.

4. 어린 아이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의 감기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초부터 우주의 몸으로堂堂하고 건강한 아이로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아이의 몸 자체의 요구와 행로가 그 원칙이 되는 것이다. 아이의 몸 밖에서 어른들의 생각과 생활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 원하는 요구와 행로인 것이다.

1) 먹거리 생활

- * 육식을 피한다 - 아이는 일생 중에서 가장 왕성한 성장 중에 있으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체액이 어른에 비해 약산성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아이의 몸과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이의 몸은 가급적이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아이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체액을 약알칼리로 조정해주는 음식은 곡류(흰 쌀만은 영양결핍과 체액을 산성으로 이끈다), 야채류, 해조류, 과일, 생수 등이다. 더구나 아이의 몸은 성인 남자에 비해 몸의 단백질 합성능력이 뛰어나므로 동물성 단백질은 아이에게는 지나친 음식이며 어른에 비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우유, 계란 등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 간식을 가급적 주지 않는다 - 어린 아이의 간식은 그 내용과 정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어릴 때부터의 나쁜 식습관의 원인이 된다. 간식을 자주 하게 되면 밥을 피하게 되고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며, 끊임없이 쓸데없는 것을 먹는 아주 나쁜 식습관을 가지게 된다.
- *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 야채와 과일 등은 반드시 제철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예로 한겨울에 포도나 참외 등을 먹는 것은 외부 기온과 몸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서 몸은 이들 몸의 법칙에 어긋난 것을 내보내려고 기침이나 가래,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물이나 음료수도 계절에 맞아야 한다. 즉 겨울에는 겨울온도에 맞게 약간 차게, 여름에는 여름의 온도에 맞게 약간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다. 이는 가급적이면 냉장고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막상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물 이외의 음식을 피해서 소식이나 단식을 시

켜서 몸 안의 노폐물들이 신속하게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입을거리, 집생활

- *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웬만해서는 모자를 씌우지 말고 아주 더운 여름이 아니면 양말은 가급적 신겨야 한다. 머리가 뜨거우면 머리에 땀이 차기 쉽고 땀구멍의 조절이 느슨해져서 외부기온에 적응력이 떨어진다. 발이 차게 되면 온몸의 피돌기가 나빠지고 코의 기능이 떨어진다. 발이 차면 콧물을 흘리면서 코가 막히기 쉽다.
- * 아이의 옷은 천연섬유의 옷으로 가급적 헐렁하여 통풍이 잘 되면서 활동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 * 실내의 온도는 계절에 맞아야 한다. 겨울은 약간 춥게, 여름은 약간 덥게 지내야 하는 것이다. 겨울의 경우에도 실내의 온도는 20도 이상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고 여름에는 가급적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목욕할 때 가급적이면 비누나 샴푸, 패수건의 사용을 피하고 죽염이나 묽은 소금을 사용한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이의 피부의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누나 샴푸의 사용은 피부의 약산성의 상태를 알칼리로 만들어서 피부의 항균력이나 면역능력이 떨어진다.
- *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를 발가벗긴 채로 종종 바람목욕을 시킨다. 하루에 약 20분 정도 바람목욕을 시킴으로써 피부를 통하여 몸 안의 노폐물을 내보내고 또한 피부 자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5. 감기에 걸렸을 때의 한몸짓기건강요법

1) 다리목욕법(각탕법)

다리목욕법의 원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먼 부분은 그만큼 피돌기가 나쁘고 차가와지기 쉽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있기 쉽다.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몸 안의 독소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몸의 요구와 행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무조건 열을 내리려고 해열제를 쓴다거나 열이 나면서 추워하는 아이에게 옷을 벗겨

서 차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몸 안의 노폐물을 계속 몸 안에 정체시키게 되어 다른 잔병치레를 하게 한다. 문제는 열이 나는 하나의 현상에만 연연하여 열만 내리는데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몸이 열을 내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먼저 몸의 요구와 행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조치는 그 몸의 요구와 행로를 온전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감기로 열이 날 때 다리목욕법은 감기를 통해서 몸 안을 청소하고자 하는 몸의 요구와 행로를 돕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열이 날 때 우리 몸에서는 독소들의 활동도 왕성하지만 그 독소들에 저항하려는 몸의 방어기능이나 면역기능 역시 왕성해진다. 그래서 열이 날 때 각종의 항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열이 나는 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게 되면 열이 나기 전의 몸보다 훨씬 건강해진 몸으로 되는 것이다.

인체의 체온은 보통 36.5-37도로 각종의 세균이 살기에 매우 좋은 온도이다. 우리 몸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각종의 세균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데 열이 난다는 것은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들 세균들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되어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불어난 세균들의 수와 종류를 조정하겠다는 몸의 요구와 행로인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37.5도 이상이 되면 불활성화되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열을 내는 몸을 도와 몸이 더욱 효과적으로 열을 온몸에 골고루 내어서 몸 안 구석구석을 잘 청소하게 하는 것이다.

2) 다리목욕법의 방법

우선 약 40도 가량의 뜨거운 물을 찹통이나 양동이의 3분의 2정도로 준비한다. 그리고 끓는 물 한 주전자를 여분으로 준비해둔다.

아이의 옷은 입힌 채로 아랫도리만 벗겨서 위의 준비한 물에 종아리까지만 담근다. 처음부터 다리를 집어 넣으면 아이가 뜨거워서 놀라거나 싫어할 수 있으므로 발부터 물을 적셔가면서 아이를 달랜다. 아이가 뜨거운 물에 적응되면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다리를 담근다. 20분 가량 다리를 담그다 보면 물이 식어 버리는데 이때 준비한 주전자의 물을 살살 부어가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잘 닦은 다음, 찬물에 잠시(40초-1분) 담근다. 그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재운다.

보통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의 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다른 감기 증상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극복해낸다. 만일 한번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3시간 뒤에 다시 한번 해주

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다시 3시간 이후에 하면 거의 떨어진다.

다리목욕을 할 때는 가급적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전에 하게 되면 낮에 잠을 자게 되어 밤에 잠을 잘 안 잘 수가 있다.

부모님(어른)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열을 대단히 두려워 한다. 아이들의 몸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39도나 40도에 이르고 경기까지 하고, 더구나 열이 너무 높아서 후에 뇌에 이상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몸서 두렵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우리 몸의 열은 43도 이상부터 단백질 변성을 일으킨다. 즉 그렇게 쉽게 뇌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열로 인한 경기 역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다. 오히려 열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아이들의 경우 38.5도 이상이 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으로서 이때 우리는 아이를 안정시킨 다음 손발을 따주거나 손발을 잘 주물러주면 되는 것이다.

반면에 환절기에 아이들이 감기의 일종으로 미열이 나면서 설사에 구토를 얻거퍼 하는, 일명 가성콜레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탈수가 되어 위급해질 수 있다. 탈수로 인한 일에는 다리 목욕법은 효과가 별로 없다. 원인 자체가 탈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쌀 미음을 물게 쏘아서 다른 일체의 음식을 중지하고 이 미음만을 주다 보면 탈수와 더불어 열조절이 가능해진다.

이외의 경우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무조건 다리목욕법을 권하고 싶다.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설습을 전달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물깃기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自然産 食餌療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 전화 : (02) 882-4705, 팩스 : (02) 878-4624입니다.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 교실

-그 마지막 순서 : 비디오의 가능성-

김태일 / [푸른 영상] 연출가

지난 3월달 어느 여성대회에서 여성운동에 장애가 되는 다섯가지 중에 "젖소부인 바람났네"라는 비디오 예로물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영상물의 범람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출현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하는 한 예를 보여준다. 그 영화도 검열받아 시중에 판매, 대여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쪽에 서있는 영화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아마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검열이라는 장치를 통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화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이고 고발적인 내용들은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아도 정책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운동에 긍정적인 영화를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이는 각자의 생각을 비디오 제작해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비디오라는 매체가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부터 출발하면 된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직접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TV를 통해 일상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디오나 영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아니래도 서투르지만 자신의 얘기나 자기 집단의 문제를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영상매체의 중요성은 쉽게 자신의 주변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교육적인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처음 촬영을 하거나 내용을 잡을 때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비디오를 통해서 담아내고 정리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나갈 수

있다. 홈비디오를 다루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 주변의 작은 일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행동들을 꼼꼼히 기록해서 다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비디오 작업은 한층 재미있을 것이다. 자기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다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기록을 넘어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은 무수한 말보다도 직접적이고 강하게 뇌리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치료에도 비디오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멋있고 좋은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진솔한 생활의 모습을 촬영하고 보여주면서 당신은 영상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주면서 여러분이 영상매체의 중요성과 두려움을 버리고 새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 어느 사진, 비디오 통신사에서 중국 댐 공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려고 하니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중국 여성 유학생에게 비디오 사용법에 대해 한시간 가량 가르쳐주고 촬영해오라고 부탁했다. 그 통신사에서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녀가 촬영해온 것이 너무 훌륭해서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한다.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요즈음 사람들은 누구나 영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무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편집부에서 :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작은 기획>으로 마련되었던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 교실'이 끝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우리네 아이들]에 귀한 글 보내주신 김태일님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네 방앗간'을 이용합니다.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선희 재정사업 국장이 손수 운전을 배워 경인지역정도는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지역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네 방앗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위원회별로 ① 매달 '우리 떡 먹는 날'을 정하여 신청하기 ② 생일잔치는 매월 동일한 날에 생일떡케익을 신청하기 ③ 영아식으로 미숫가루를 신청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미리 1주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차질없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는 지역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모색해 봅시다.

품목 : 각종 떡류, 생일떡 케익, 고추가루, 참기름(7,000원/병), 들기름(4,500원/병), 미숫가루(5,000원/Kg).

세상읽기

선거, 썩썩한 이야기

편집부

시끌벅적하던 총선이 끝났다.

처음 어디에서 누가 나오는가에서 부터 당선자의 흥분, 낙선자의 눈물마저도 이전 더 이상 우리의 대화거리에 끼어들지 않는다.

참으로 이번도 말썽도 많은 선거였고 그 뒤탈이 아직도 신문과 뉴스의 한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리고 63.9%라는 우리 역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지난 14대 총선때만도 71.9%를 기록하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투표율의 하락이다.

투표 당일, 각 방송사에서는 투표시간이 끝나자마자 뉴스를 통해 각 당대표와 이름 있는 이들의 투표모습을 다루면서 동시에 127세의 할머니부터 각 지역의 최고령자들이 손주들의 부축을 받고 투표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당대표들의 모습과 함께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이들의 투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당신 혼자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할 수도 없어서 자손들의 부축으로, 어쩔 자손들이 대신 찍어주는 투표용지를 간신히 들고 나와 투표함에 넣는 그 힘겨운 모습이 그야말로 들러리와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투표행위를 의식없는 행위, 의미없는 한 표라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등굣은 노인네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랬었다.

항상 통치자의 업적에 가려 굵은 허리 펴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 한마디의 비판적인 말도 해서는 안되었다. 오로지 찬미만을 강요당해온 우리의 역사, 정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정권의 안정을(결코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 다시 표를 주는 것이었고 그렇듯 우리의 의식이나 바람과는 상관없는 행위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굴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 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매 시간마다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 듣고 또 외우고 이해하려 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선생도, 질문하는 학생도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였다.

고생대, 중생대를 넘어 삼국시대와 조선의 이야기를 술하게 들으면서도 정작 지금의 우리사회에 대해서는 변변한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는 교육을 받은 우리였고 그렇게 우리는 사회와 생활 사이의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며 따로국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젊어서 폐기가 있고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찰자적인 시기라는 청년기에 많은 청년들은 관찰자가 아닌 방관자로 바뀌어버렸다.

투표를 하기 위해 예전처럼 줄을 많이 늘어설 필요도 없었던 이번 선거는, 그나마 방송화면을 통해 비춰진 모습은 젊은층의 모습보다는 장, 노년층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전의 역사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온 사회라면 이제부터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과 많은 젊은층의 기권소식을 접하면서 가졌던 어깨죽지 처지는 느낌이 다음 대선에서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역사. 지금 정치와 사회, 경제를 휘어잡는 장년층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없이 좀더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막아△별곡

꽃들나라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 내 몸은 내 몸인데...

점심 먹고 양치질이 끝나면 마당에 나가서 놀게 되어있다.

마당에 나가서 노는 것이 어쩌나 재미있었던지 성민이(5세 남아)는 소변을 참다 참다 그만 일을 터뜨리고 만 것이다. 소변을 참다가 한계에 다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왔는데 그만 바지를 내리자마자 쉬통을 가져가기도 전에 싸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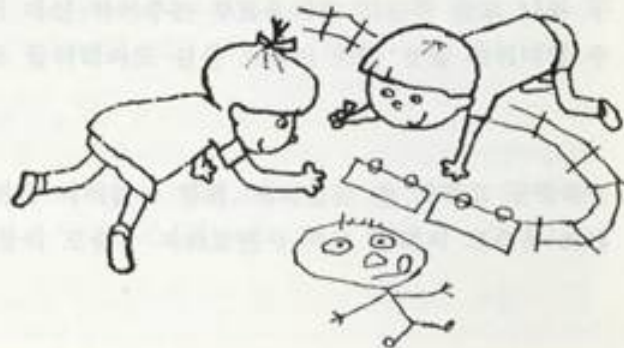
선생님 : 성민아 참지 말고 물어워서 소변 싸이지.

성 민 : 내가 안 그랬어요.

선생님 : 그런 누가 그랬니? (알면서 물어봄)

성 민 : 진짜 내가 안 그랬어요. 지가 알아서 내렸어요.

선생님 : ???



이야기 두들 . 나의 씹직한 왕자님

오리반이 미술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책상 없이 방에서 하기 때문에 자유포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한다. 그래서 먼저 끝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면 늦게 하는 아이들이 방해를 받고 때론 작품을 망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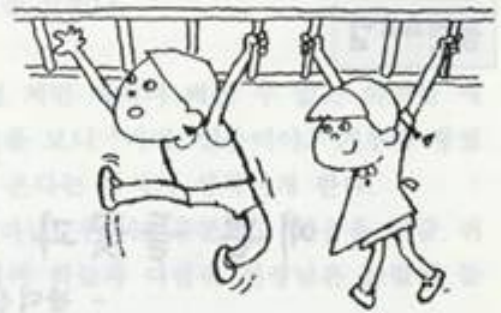
그날도 어김없이 일찍 한 아이들이 장난을 쳤다.

오리 선생님 : 오리반 친구들, 문 앞에서 놀이감 가지고 조용히 다른 친구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몇 번 이야기 해도 선생님 말에 끄덕도 없다. 그때였다.

대한(4세 남아) : 너거들이 장난쳐서 친구들이 그런 못그리잖아.
지금 대한이 머리에 뽕났다. 모두 여기 서!!!

아니 웬일이지! 대한이 한마디에 장난치던 아이들이 모두 벽에 서서 벌을 서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대한이는 오리 선생님에게 멋있는 왕자님으로 다가왔다.



등산모임

예쁜 들꽃과 계곡 얼음의 조화

- 광덕산을 다녀와서 -

이연순 / 인천지역 등산소모임 '들꽃 산악회'
햇살어린이집

“아, 동네 뒷산에 오르는 기분인데?”

“여기 꽃 좀 봐.”

“어머, 이거 눈 아냐?”

“4월의 끝자락을 잡고서 웬 눈이야?”

신입회원 예쁜이, 토끼 선생님, 기존회원 장미, 별, 다람쥐, 하늘 선생님, 8살짜리 아들 윤호 7명에서 4월에 가보자고 정한 산이 광덕산이다. 3월 산행은 비가 온 탓에 쉬었더니 산에 간 지 너무 오래 된 듯 하다고 다들 몸이 쑤신단다. 부평에서 전철로 1시간, 상봉터 미널에서 광덕재까지 2시간, 땀과 피로가 가득했다. 광덕산 입구에 내려서 우린 요기부터 한다. 빵, 토마토, 사과, 꿀, 김밥... 먹을 것도 많다.

산은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것처럼 푸근했다. 울창한 잣나무 숲과 너무 진해서 조화인 가 만져보게 하는 소나무 숲이 햇빛따라 능선으로 이어져 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서 사람이 없는 게, 일요일이면 산에 오르는지 사람을 뒤흔는지 모르게 봄비는 서울근교쪽 산보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어디가 정상인지 잘 모르게 계속되는 능선과 한적한 산길에 우리는 놀며 쉬며 윤호의 수다를 말리면서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안으며 ‘한숨 자고 갈꺼냐’ 유혹을 뿌리치며 산에 오르는 동안 그토록 고민하던 등산모임의 이름을 정했다. 마음이 고운 우리 선생님들인지라 산 끝에서 부는 바람에도 마른 산에 핀 들꽃에도 그저 감탄을 하다보니 간간히 피어있는 들꽃의 예쁘기만한 모습에 아이들을 떠올리다가 ‘들꽃 산악회’가 되어버렸다. 억지 만장일치! 우리는 들꽃의 많은 의미를 서로의 마음에 새겼다.

정상에 서니 올라온 다른 편 길은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구불구불 나있다. 6.25때 격전지였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어느 아저씨의 말 끝에 올라온 반대편의 산을 보니 어머니 세상에, 흰 눈이 산자락을 덮고 있다. 한(恨)이런가.

우린 말없이 도시락을 꺼냈고 달라지는 바람결을 느낀다.

내려오는 길은 큰 길을 따라 돌씩 짚지어 이런 저런 얘기며 떠돌 수 없는 아이들 얘기까지 터덜터덜 흙길을 따라 오는데 물소리에 옆을 보니 “어머, 얼음이야.” 겨우내 쌓였던 눈이 얼어서 녹고 있었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온다는 동시가 생각나게 한다.

노랗고 예쁜 들꽃과 계곡의 눈 얼음과의 조화라니, 우리는 흥분했고 얼음을 한줌 쥐어보니 마치 보석 같았다. 발로 쿵쿵 굴러보고 벌써 하늘과 다람쥐 선생님은 눈발에 들어가 미끄럼을 탄다.

“우리 겨울에 푸대자루 들고 오자.” “정말 신나겠다.” 산에서 내려올수록 얼음의 두께가 두꺼웠다. 길가에 핀 버들강아지를 보고 하늘이 고향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버들피리 만들겠다고 덤뻐으나 실패, 왕년의 그 실력이 어디 갔는지, “나무가 물이 덜 찼나?” “엔 나무땀!”

동네 어귀에 들어서니 예쁜이가 부른다. “선생님!” 우리가 본 것은 층층이 얼어서 된 얼음의 두께였다. 족히 1미터는 되리라.

정말 대단한 산이다. 5,000미터가 넘으면서 산중턱까지 차가 다녀서 그런지 높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는 여운을 남기고 역시 한번쯤 와 볼만한 산이야 하며 의미있는 눈짓을 모은다.

차시간 1시간의 여유를 두고 포천 이동막걸리에 도토리묵, 감자전에 아직도 우리 가 방속에 남은 따뜻한 먹거리를 꺼낸다. 식탁에 주인의 눈치 받으며 쌓인 오이, 꿀, 과자는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고 기막히게 맛있는 감자전에 입맛을 다시며 버스에 오른다. 우리 몫은 좌석 7개, 큰 언니의 배려로 제일 깔끔한 예쁜이가 앉고 우리는 지정석에 엉덩이를 붙이고 무릎을 세우고 단잠을 잔다. 2시간의 서울행이 3시간이 될 때까지 비록 오가는 길이 멀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하루였다.

남에게 민폐를 조금이라도 덜 끼친다고 늦어서 도시락은 못썩지만 수저는 준비한 선배교사를 본받아 먹지도 않는 커피를 준비하고 가방 가득 과일이며 빵을 싸온 신진교사들이 마냥 사랑스럽다.

“다음에는 어딜 갈까?” “한라산도 가자.” “지리산 가야지.” “나는 아무데나 좋아.” 3년의 역사를 가진 들꽃 산악회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며 매월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산이란 산은 다 갈 예정이다. 처음 등산모임을 꾸린 은하선생님은 아이엄마가 되느라 마음만 보태고 있지만 현재 6명의 회원이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주 회원에 가입한다면 나중에는 우리도 차량을 동원해서 갈 예정이다. 회원가입은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이면 전화 한 통으로 회원이 될 수 있기에 몇달 지나면 너무 많은 회원이 생기지 않을까.

(들꽃산악회 참여문의 : 햇살어린이집 032-525-3734)

통신이야기

어린이집 아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서정은 /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부모나 교사 등 관련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꾸며진다.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올라온 최근 질문을 소개한다.

집에서 놀이방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현재 몬테소리 사단법인 인가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군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이번에 어린이집을 하려 합니다...

국가 보조금·관련 법규 등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자 합니다.

어디서 어떤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만이라도...

어린이집, 놀이방의 개원을 문의하는 내용인데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란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질문이자 연구소로 직접 오는 상담전화 중 가장 난처한 질문중에 하나이다. 왜 그런고 하니, 전화상으로나 질문에 대해 요약해서 답해주는 Q/A코너 등에서 답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고 사연이 깊기 때문이다.

경험상 이러한 상담은 두세시간은 족히 걸릴 내용이며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이후 시설운영을 짐작하는 등 내용을 상의하자면 아주 깊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린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만큼 의미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로서는 아동보육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의미로 아동보육사업을 바라보길 바라고 그에 따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집, 놀이방을 여는 것에 숨겨진(?) 이야기가 그렇게 많다고 여기질 않는 듯하다. 공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인가와 신고절차를 알

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나아가 자격있는 이를 내세워 신고·인가증부터 우선 받고 보자거나 자녀양육의 경험을 들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 우리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 많은 아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온근히 물어오기도 하고 신고와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어찌 되는지부터 물어 올 때는 질문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떠나 아동보육사업에 대한 경시로 여겨져 한숨부터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지난 4월 18일 아동보육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예비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를 열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설치,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보육시설의 역할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유치원, 학원 등 유아교육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들의 참가신청이 예상외로 많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운영하는 시설보다 보육시설의 전망이 낫다'는 얘기였다. 정부지원도 된다던데, 한 이자로 용자도 해준다던데, 어린 아동이 너무 많아서, 부모들도 원하고...

보육현장의 교사나 원장들도 과연 보육사업을 '전망있다'고 생각할까?

전망있다는 보육시설은 왜 그리 자주 이사하고 문 닫고 원장이 자주 바뀌는가?

보육현실을 모르고 뛰어든 원장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보육대상 아동수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 놀이방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에 보육시설의 증가는 필요하고 정부예산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는 있고... 그렇기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계획 속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의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의 육성정책을 몇 년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기에 어려운 현실이며 이것은 부실한 보육시설의 숫적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다수의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행·재정적 지원 없는 가운데 아동보육사업의 공익적 성격은 운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되는 것이다.

경인지역은 물론 멀리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찾아와 강의실을 꼭 채운 참석자들은 연령대도 20대초반에서 50대까지, 일반 주부나 이제 막 양성교육기관을 졸업한 수료자들에서 유치원, 미술학원 등을 몇십년간 운영한 그 계통의 베테랑 원장까지, 일반 놀이방 운영에서 농촌탁아소,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놀이방 설치와 운영이 남는 시간 쪼개어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업'이나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아닌 아동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사명감속에서 출발함을 전제로 한 강의와 현실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유치원 원장이라며 자신을 밝힌 한 참석자가 설명회가 끝나 돌아가며,

"유치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땅이 좀 있어서 어린이집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 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한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나아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 담긴 큰 의미를 알았다는 뜻이리라.

설명회 이후 자료집을 구하러는, 더 깊은 상담을 원하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기에 다음 일정을 묻는 등 각종 문의를 통해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에 갖는 기대와 관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매우 큼을 인식하게 되었다.

관할 구청의 가정복지과나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기초적인 상담은 물론, 아동보육사업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등 아동보육사업 관련자들이 바라는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욕구를 지닌 예비원장들에게 더욱 충실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다. 또한 보육사업에 있어 개척되지 않은 여러 영역을 살펴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의 준비를 돕고 예상치 못한 운영의 어려움과 전문성 미비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내 많은 수가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천리안', '하이텔'에 이어 '유니텔'에서도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가 선보인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 놀이방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만만치 않음을 느낀다.

'정보와 자료가 여기 있소'하고 내주는 것만이 아닌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 있음을...

우리들의 목소리

시작되는 봄 안에서 또 다른 봄을 기다리며...

박은하 / 전달래동산 어린이집

나이 든 오동나무 베는 것을 돕기 위해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왔다. 나쁜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봄을 즐긴지도 꽤 오랜만인 듯 싶었다. 멍하니 쓰러져가는 나무를 보다보니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어왔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어쩌면 이 봄을 맞이하여 오동나무를 베어내듯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되어버린 타성도 짝짝 베어내야 하리라.

아직은 차지만 훈훈한 바람속에 서 있자니 처음 어린이집에 발을 들던 그때의 설렘이 느껴져왔다. 시린 겨울 끝에 발견한 작은 새싹을 볼 때와 같은 그 느낌...

"아이들이 좋아서요."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일을 시작한 그때는 참 천도 없었고, 너무도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그때의 당당함과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은 기분은 소중한 간직하고픈 것들이다.

자신감도 잠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뒤 내가 과연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과연 저 아이들에게 내가 저 아이 엄마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을지 하는 회의가 밀려들었다. 삼류소설에나 나올법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술한 밤이라는 표현이 나에게겐 장난이 아니었다. 나에게

영 정을 주지 않던 아이, 적응하느라 내 등에서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울기만 한 아이, 때때로는 아이, 자신만 아는 아이, 나를 무시하던 아이 등 나에게 힘겨운 상황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인 것보다 먼저 아이들이 나를 받아주었다고 느낀 순간의 행복은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집에 갈 때 표족히 입술을 내민 얼굴, 그렇게 칭얼대고 자기만 알던 놈이 어느새 남을 생각하고 썩썩하게 노는 모습,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가운 얼굴로 배달리는 손들, 낮잠 자다가 "나 선생님 좋아합니다요."라고 속삭이는 입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알지도 못한 순간 너무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내 자리-선생님-을 당당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아주 큰 것이 있다. '선생님'이란-자리는 내가 택한 직업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나를 아이들이 받아들여 주고 나 또한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쉽게 '선생님'을 받아주지 않는 듯 싶다. 초·중·고 교사도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기관인 보육시설 교사의 위치는 기대에 부푼 나를 비웃어 주었다. 앞에서는 선생이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당신"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직접 당했던 경험은 내 삶에 대한 회의의 눈물과 함께 나의 의욕을 많이도 좌절시켰다.

햇은 자가 풀어야 한다고 옛어른들이 그랬던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나를 몇배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엄마들이었으니 말이다. 힘든 일이 끝난 뒤에 맑게 아이들을 대려가며 신뢰의 웃음을 띄우는 엄마들의 건강 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수도 있는 일을 하소연으로 전하는 모습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크게 인정받는 그 어느 자

리보다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큰 힘을 준 건 내 옆에서 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준 전달래동산과 오손도손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었다. 서로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커다란 힘, 일에 대한 열정들은 나를 사로잡아 지금도 버티게 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때 수련회마다 살아있는 희망을 보여준 지탁연 선생님들도... (이런 저런 꾸밈글에 아부의 소리가 묻었나 보다).

이젠 누군가 나에게 왜 어린이집에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아이들을 닮아가기 위해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듯 얼마되지 않은 나의 교사생활을 뒤돌아보니 나를 스쳐간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 엄마들의 기쁨과 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한계, 나의 반성의 한숨들이 내 삶 안에서 큰 발자국을 내고 있었다. 아직은 사회에서 (어쩔 내 스스로도) 인정받는 진정한 '선생님'의 자리매김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나의 조그만 소망 하나 있다면 내가 보듬어 안았던 아이들 중에 단 한명에게라도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자라도록 도움을 준 어떤 '선생님'으로 서있고 싶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나는 진한 낙차향과 나쁜 햇빛에 취해 보육교사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꽃 피는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마, 사람이 맨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최순옥 / 본회 교육부장

“엄마, 사람이 맨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친구집에 다녀온 딸아이가 대뜸 한 말이다. 아이가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구에 사람이 맨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궁금해하기에 같이 동네에 있던 시립도서관을 오가기도 한 터라 그 얘긴 줄 알았다. 한때, 굉장한 사실을 알아냈다는 듯 자랑스럽게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이란다.

“누가 그러든?”

“XX엄마가. XX엄마가 나보고 일요일에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래. 교회 나가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대. 내 친구는 주일학교 갈 때 1000원씩 가져간대. 돈 많이 가져갈수록 좋대.”

지탁연에 다시 복귀하기로 마음을 굳히긴 했는데 딸아이를 이찌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혼자 커서 그런지 잠시라도 집에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터라 이럴 보내긴 보내야했는데 집 근처에 마땅한 공부방이 없고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자니 20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일이 빨라 2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7살 반을 다녔는데 또래 친구도 없는 7살 반에 다시 넣는 것은 아

이에게 못할 것이었다 무엇보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하루종일 실내에서 지내게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차라리 일회 목걸이를 해주고 혼자 밥 챙겨먹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한 학원이나 한 군데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놀고 싶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었다. 한때 아이는 강도가 집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있겠단다. 그러더니 강아지 한마리를 사주면 혼자 있을 수 있겠단다 해서 강아지를 한마리 사주는 걸로 간신히 아이한테 직장 다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그 다음은 서로 집에 오가며 놀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게 문제였다. 딸아이에겐 물어 봤더니 눈에 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단다. 말이 나온 김에 아이에게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보라고 했다. 아파트 몇동이지만 알고 호수는 모른다는 아이에게 그럼 그 동의 경비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기나 하라고 아이를 보냈다.

이 글머리에 쓴 내용이 바로 그 집에 다녀온 아이가 한 말이다.

...

처음엔 기도 막히고 속도 상했지만 생각해 보니 내가 더 경솔했던 것 같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지관으로 전화를 했다. 공부방 프로그램이 개설됐단다. 휴! 일단 안도의 한숨. 집에서 복지관까지는 아이걸음으로 30분 가량. ‘좀 멀긴 하지만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어딴?’하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며칠 후에 오라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등록하러 갔다. 하지만 공부방에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단다.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 어디보자, 아이가 집에 오는 시간이 12시 반이고 공부방 프로그램이 2시부터 4시 까지,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7시 30분이니까 서너시

간이 빈다. 아무래도 아이가 혼자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하는 수 없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신청해야만 했다. 한때 그것도 태권도 말고는 모두 신청 마감됐단다. 어쩔까 망설이는데 딸아이가 태권도를 하겠단다. 빌로 내키지 않았다. 한때 아이가 굳이 태권도를 하겠다는 바람에 신청을 했다.

아이가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즈음 한창 텔레비전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던 터라 아이가 몹시 두려웠던가 보다. 아이 땀에는 태권도를 하면 폭력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다. 워낙 험한 세상이라 나 또한 아이가 좀 크면 호신술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터였다.

이제 아이는 학교 말고도 두군데에다 월요일 수요일엔 2월 초에 이미 신청해 놓은 YMCA프로그램까지 세 군데를 돌아다니야 한다. 점심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아이 때문에 시대 근처로 이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도 직장에 다니시는 처지이고 해서 웬만하면 부탁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어쨌든 어렵사리 아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고 지금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그날 따라 아이에게 일회를 챙겨주지 못했는데 나도, 어머니도 늦는 바람에 아이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만 사건이 있긴 했어도 아이는 지금 공부방과 태권도장에 잘 다니고 있다. 가끔씩 “엄마 나 너무 피곤해”하며 힘들어 하는 아이가 안스럽다. 그래도 공부방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면 필히 쫓는다. 너무 재미있어서 빠지기 싫다나! 지금도 이불을 깔고 서로 꿇고서 책을 읽어줘야 잠이 드는 딸아이, 잠든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늘따라 그렇게 대견스러워 보일 수가 없다.

보육계 동향

제6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탁연을 비롯한 9개 교육관련 단체에서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이라는 제목하에 여섯번째 행사를 갖는다. 예년과 다른 점은 올해는 [우리 문화·역사의 주인, 우리 어린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기조를 잡았고, 또 교대의 '큰 마당'외에 2곳의 '작은 마당'이 펼쳐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 : 큰 마당 - 서울교대

작은 마당 - 양천공원

노원구 중계 마들 근린공원

시간 : 1996. 5. 5(일). 10:00 - 16:00

참가비 : 어린이 무료, 어른은 2,000원

내용 : 환경마당, 통일마당, 역사마당, 노래마당,

놀이마당, 유아마당, 연극마당, 도서전시마당,

교육영화마당, 바른 먹거리 문화 장터.

주최 : 지탁연,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놀이연구회 [놀이], 유아교육을 위한 서울교사모임, 어린이극연구회 [소꿉놀이], 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겨레문화센터.

후원 : 한겨레신문사

★ 당일행사외에 5월 첫주는 '어린이 한마당 열기'주간으로 [우리에게 늘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육문화 캠페인 96'을 펼친다.

제2회 지탁연 회원강좌 '아동 관찰과 교사의 자기 성찰'

지난 [우리네 아이들] 4월호에 독일의 보육현황이 한국 보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강의하기로 광고되었던 바 있으나 보육현황이나 프로그램을 개관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주제를 심화시켜 강의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강사님의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아동관찰이 일과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현 어린이집 교육방식이 지나치게 교사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않는가, 교육이 아이들의 경험, 흥미, 욕구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 내기 보다 각종 지침서에 나온 내용들을 조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교육계획을 짜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맞추어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않는가, 교사들은 자유놀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혹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가 등등 어린이집의 교육방식과 교사 자신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갖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모색해 보도록 합니다.

일시 : 1996년 5월 25일(네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대상 : 지탁연 정회원, 개인회원, 자료회원 및 회원소개 비회원

강사 : 윤선영 선생님(베를린 대학 박사과정, 충북대 호서대 보육훈련원 강사, 독일 '우리들'모임 회원)

참가비 : 7,000원(비회원 10,000원)

접수 : 전화신청(사진에 회비를 납부하신 분께는 20일 전까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02-275-8505)

내일신문, 제4기 성교육 강사훈련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4기 성교육 강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강좌	제 목	일 시
1강	성이란 무엇인가	5/1(수) 10-12시
2강	한의학에서 본 성	5/3(토) 10-12시
3강	생활속의 성지식	5/6(월) 10-12시
4강	남성의 성, 여성의성	5/10(금) 10-12시
5강	성장기의 성	5/13(월) 10-12시
6강	청소년 성의 현실과 상담사례	5/15(수) 10-12시
7강	강사의 자세와 강의방법	5/17(금) 10-12시
8강	성문화와 성폭력	5/21(화) 5/22(수) 10-12시중 선택

대상 : 남녀모두

장소 : 내일신문 본사 강당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수강료 : 10만원

신청 : 330-7480*1

주최 :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1996년도 창작동화·동시 공모

(사)한국어린이유영회에서는 매년 창작동화와 동시를 공모하여 유아를 위한 창작동화·동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

내용 :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주제로 참신한 내용

응모대상 : 동화, 동시 창작에 관심이 있는 성인, 학생, 어린이로 기성작가의 출품 가능

원고매수 : 동화는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동시는 원고지 3매 이내

(반드시 원고지에 써서 제출)

원고마감 : 1996년 5월 10일 도착분까지

시상내용 : 상장 및 상금 수여

1) 동화부문

-최우수작 1편 : 100만원

-우수작 1편 : 50만원

-가작 3편 : 각 30만원

2) 동시부문

-최우수작 1편 : 50만원

-우수작 1편 : 30만원

-가작 10편 : 각 10만원

접수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2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유영회 연구실 창작동화·동시 공모 담당자(암)

우)138-240 전화: 02)425-1672-3

중국에서 봉사할 특수교사를 구함

자격 : 전공필자, 해외선교에 뜻이 있는 자, 해당분야 유경험자 우대

근무 : 중국,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체 장애아동 대상 교육

문의 : 중국복지후원회(02-547-5542)

대한특수조기교육원 발달장애아 무료 상담

대상 : 30개월~15세

증상 : 무언어, 언어장애, 유아지폐성 청각장애 등

전화 : 0343)22-0667 23-7774

후원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 화제로 생활공간과 아이들 놀이감을 비롯한 여러 살림살이를 잃은 하나. 둘.셋 유아원에서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낡은 것도 무방)를 구합니다.

위 물품을 기증하시고픈 분은 연락바랍니다. 02-945-1018

△식과 △식

여연 이미경 대표 통합민주당 전국구 후보 수락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 상임대표는 통합민주당 전국구 후보를 수락하였다.

3월 26일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전국구 2번으로 공식제의를 들어오자 여연에서는 긴급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그동안 여연에서 전국구의원 중 50%를 여성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온 만큼 본인의 동의와 함께, 여성운동의 영역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 수락을 동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미경 상임대표의 통합민주당 전국구 후보 수락동의와 함께 4월 1일자로 대표직을 사퇴하여 공동대표 보릴 및 상임대표 선출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가 있었다.

회의결과 현재 공동대표인 지은희, 한명희씨가 유임은 하고, 상임대표로는 지은희 공동대표가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가 4월 15일(월) 11시에 서울시 가정복지국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보육위원 및 관계 공무원, 본회에서는 최현숙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96년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안)심의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안) 심의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현재 440건의 총 82,128백만원의 융자신청이 들어와 있으나 실제 대출액은 440건에 61,570백만원으로 융자신청액의 75%이 대출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융자신청액보다 보건복지부의 배정액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시설건축비 융자신청액 상한선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많은 신청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 조정기준과 추천기준을 마련, 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추천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보육관련 정보를 전산입력하여 P.C 통신망에 연결, 보육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서울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발송

본회와 전국민보련은 공동으로 '96 보육사업지침'을 분석, 정리된 우리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4월 15일 우편으로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다.

제안서는 1. 보육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육비용에 따른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질적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제안서에 대한 답변서는 15일 안에 보내게 되어있으며 추후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 성황리에 열려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가 주최한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가 지난 4월 18일, 여성평화의 집 강당에서 열렸다.

오전, 오후 나뉘어 진행된 설명회는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예비원장 83명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주부, 관련교육기관 운영자, 농촌보육시설, 공동육아협동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준비하는 예비원장들이 참석하여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개원을 준비하고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근거자료와 실제 운영사례를 자료집과 전시물로 제시받았다.

이날 설명회에 본회 남미영 회장은 아동보육사업이 어렵고 힘든 만큼 보람도 크기에 모쪼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보육사업에 함께 하기 위해 출발한 예비원장들을 환영한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설명회 자료집은 수정·보완을 거쳐 5월말에 부수를 늘려 발간할 예정이며 다음번 설명회는 11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PC통신 [유니텔]에 정보제공 시작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PC통신 천리안, 하이텔에 이어 지난 4월 25일부터 유니텔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한다.

윈도우 환경인 유니텔에 제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는 전국 시도별 분류를 더욱 쉽게 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편

리하게 하였으며 맛벌이 부부를 비롯 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어린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적 정보와 자료를 보강하였다.

유니텔내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의 색인(INDEX)명은 'BEBO'로 유니텔에 접속한 후 아무 화면에서 GO BEBO를 치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의 무료이용기간은 향후 두달동안이다.

이용문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로. (T. 268-3954, 271-1547,8)

'96 제1회 회원강좌 전래놀이 워크샵 개최 "놀주머니를 아시나요?"

전래놀이 워크샵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활용하고 계실 테지요. 놀주머니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담아 놓은 주머니랍니다. 코팅한 색종이나 아크릴판을 잘라 만든 칠교, 산가지(성냥개비), 실뜨기 놀이용 실, 고누판, 바둑알, 공기, 구슬 등을 예쁜 주머니에 담아 아이들 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 나오는 전래놀이판을 참조하시어 꼭 만들어 써 보세요.

실외놀이를 할 때, 남대문 놀이와 같은 편가르기 놀이로 편을 나눈 다음 꽃따기 놀이나 몸다리기, 꼬리따기 따위의 놀이로 이어지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며 쉼도 한꺼번에 여럿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 없이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놀이가 아이들의 수준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놀이를 선택하되 놀이방법이나 놀이 상황을 약간 변화시켜 보세요. 예컨대 칠교놀이의 경우 처음부터 7조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4조각, 5조각으로 만들어 주세요. 망쥬기의 경우도 나이가 어리면 4칸 망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리 한 발로 오래 서있기, 깨끔 뛰기 연습도 시켜 보시구요. 하지만 지나치게 놀이 자체를 세분화하면 놀이 본래의 맛과 즐거움을 잃을 수 있으니 변화시킨 수정놀이를 한 뒤에는 완결된 형태로 돌아보게 해 주세요.

영아들의 전래놀이도 있을까?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도리도리, 곤지곤지, 쟁쟁, 불무불무, 파로파로, 고네고네, 목말타기, 단지팔기 등은 영아의 감각, 운동기능, 언어발달을 자극하고 촉진시켜 주는 훌륭한 놀이입니다. 영아기의 놀이는 성인협력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아이와 놀아주면서 놀이 이름대로 장단도 맞추고 격려해 주세요. 놀이를 통해 아이와 교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얻어진 신뢰관계는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놀이에는 단지팔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소변 가리기를 심리적으로 준비해 주는 세심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루의 전래놀이 워크샵 만으로 전래 놀이를 완전히 몸에 익힐 수는 없겠죠? 어린이집에 가면 잊어버린다고 걱정하며 가신 교사도 있고 열심히 고누판을 베껴 가신 교사도 있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 한가지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전래놀이 워크샵을 맡아주신

구선희 선생님과 그날 열심히 배우신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람들 ♥

* 출산하셨습니다.

- 동부 오손도손에기방의 나은미 선생님이 그 가냘픈 몸매로 건강한 딸을 출산 하셨다고 합니다.
- 당진 푸른하늘 놀이방의 이경희 선생님(본회 전 사무국장)이 4월 24일 예쁜 둘째딸을 순산하셨습니다.

나은미 선생님과 이경희 선생님의 빠른 쾌유와 아가의 건강을 바라며, 더불어 앞으로 애진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 개원하셨습니다.

- 광주의 7톱놀이방이 교사들의 출자로 새롭게 개원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1 제일파크 101-113 전화 062)962-6349
- 전주 금암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오춘자씨가 4월 1일 새로 어린이집을 개원하셨습니다. 5월 4일 개원을 기념하여 열린마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중화3동 265번지 어울어린이집
전화 0652)227-0174 전승 0652)227-0175

* 이전하였습니다.

구로의 은누리어린이집이 3월 31일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보다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로구 가리봉2동 88-11 (02)858-4886

* 결혼하셨습니다.

전국민보련 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명미(전 나눔어린이집 교사)씨가 5월 11일(토) 3시 용산역 부근의 전자회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번달엔 모두들 즐겁고 기쁜 소식만 그득합니다.

새로 가정과 일터를 꾸리시는 분, 딸과 딸은 아가를 얻으신 분, 여러분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박수타 큰 기대 품쪽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연합회 4월 활동일지 ♥

- 4/ 1 보육사업 지침 분석모임
- 3 편집회의
- 4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8 서울경인지역 책임교사분과장회의
- 9 확대집행회의
- 10 어린이날 행사 준비모임
- 11 서울지역 교육단체연석회의
- 13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야유회
- 15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복지부 발송

- 16 집행회의
여연 임시 이사회 및 임시총회
- 17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장회의
여연 복지위원회
- 18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여연 단체 사무국장 연석회의
- 19 편집회의
- 20 제1차 회원 교육강좌(전래놀이)
사회복지학 소모임
- 22 집행회의
서울경인지역 책임교사분과장회의
- 23 지방지역대표자회의
여성평화의집 임시이사회
- 24 보육교사연수 준비팀 모임
- 25 교육단체연석회의
- 29 확대집행회의
보육사업지침 분석정책팀 회의
- 30 지방평교사분과회의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처럼 조금 느슨했던 겨울이 지나고 활기찬 봄이 오니까 모두들 바쁘신 가파요. 원고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가슴 졸이던 시간들이 이번 달은 조금 길었습니다.

기다리시는 여러분께 다소 늦게 도착되는 점, 봄이라 모두들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었나보다고 넓은 마음으로 웃어넘겨주셨으면 하구요. 다음 달부터는 원고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독촉해볼게요.

이해해주실까요?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 황신자, 백주화, 강영미, 권혜진, 최현덕, 임원선, 고은경, 김인숙, 지규남, 전상구, 이영숙, 정영희, 부산대 보육정보센터, 이해영, 송미영, 박정아님

6개월 : 이승렬, 조운미, 김명분, 김은숙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김찬구님이 1월 18일자로 13,000원을 입금하셨는데 자료회원 회비인지 자료구입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회원 회비라면 빠른 시일내에 본 연합회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회원신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에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화

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송금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잔뜩 운주려들었던 분이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을 바라보려니까 조금씩 퍼지는것이 느껴집니다.

햇살 부드럽고 바람도 가쁜한 전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일손 놓고 산보를 즐긴다면 어떨까요? 우리 문도 '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칙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협력 주선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놀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에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놀푸른대리점은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서비스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80원	1인당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특약요율의 80% 적용		
	의료상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상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통 및 일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80%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하중 적용요율의 80%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x(1±할인 할증요율)±80%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120원	9,800원	15,725원		24,225원
		2등지	7,200원	12,865원	20,315원		30,195원
		3등지	9,520원	15,215원	24,735원		39,000원
		4등지	11,365원	18,020원	29,240원		45,050원

〈놀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